금융안정 상황

Ⅰ. 신용시장 15
Ⅱ. 자산시장 38
Ⅲ. 금융기관 47
Ⅳ. 자본유출입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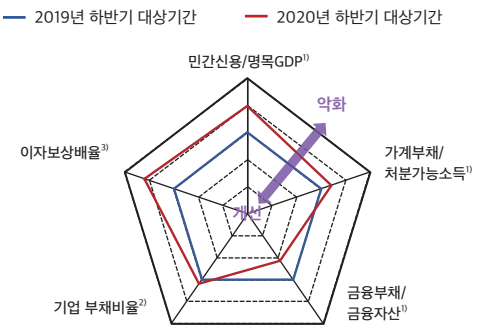
Ⅰ. 신용시장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수준을 나타내는 민간신용/명목GDP 비율[1]은 코로나19 장기화로 GDP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데다 민간신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가계신용은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증가세가 모두 확대되었으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낮아지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났다.

기업신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금확보 등으로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회사채도 순발행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업 재무건전성은 매출이 감소하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하락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악화되었다(그림 Ⅰ-1).

그림 Ⅰ-1. 신용시장 상황 변화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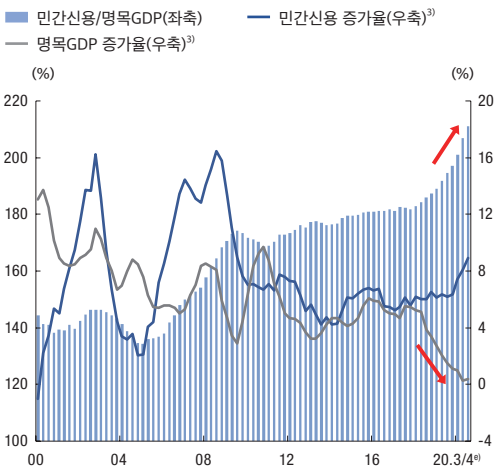
주: 1) 2019년 3/4분기말 대비 2020년 3/4분기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2) 2019년말 대비 2020년 6월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3) 2019년 대비 2019년 7월~2020년 6월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자료: 한국은행

1. 신용 레버리지

민간신용/명목GDP 비율 빠르게 상승

민간신용[2]/명목GDP 비율은 2020년 3/4분기말 211.2%(추정치)[3]로 전년동기대비 16.6%포인트 상승하여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이는 가계 및 기업의 대출증가로 민간신용 증가세가 확대된 데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명목GDP[4]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데 기인한다. 민간신용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전년말 6.4%에서 2020년 3/4분기말 8.9%로 높아졌으나 명목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2019년 4/4분기 1.1%에서 2020년 3/4분기 0.4%로 0.7%포인트 낮아졌다(그림 Ⅰ-2).

그림 Ⅰ-2. 민간신용[1]/명목GDP[2] 비율



주: 1) 2020년 3/4분기는 추정치
2) 해당 분기 및 직전 3분기 명목GDP의 합
3)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1)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수준 평가 시 민간신용 부문별 증가율,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주택가격 수준, 은행 레버리지 등 다양한 금융·실물지표가 활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BCBS', 2010)가 권고한 글로벌 공통 참고지표(common reference guide)인 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2) BCBS(2010)는 민간신용을 '가계 및 비금융기업에 공급하는 모든 형태의 채무(debt funds)'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민간신용 지표는 자금순환통계 기준 가계(대출금, 정부융자) 및 기업(대출금, 채권, 정부융자) 부채의 합을 이용하였다.
3) 2020년 3/4분기 자금순환통계 기준 가계 및 기업 신용은 가계신용 증가율(가계신용통계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기업부문 신용증가율 등을 설명변수로 한 선형회귀모형을 통해 각각 추정하였다.
4) 해당 분기 및 직전 3분기 명목GDP의 합으로 국민소득통계의 분기별 명목GDP와는 차이가 있다.

가계신용, 기업신용 증가율 모두 확대

금년 들어 가계신용과 기업신용 증가세가 모두 확대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신용/명목GDP 비율이 2020년 3/4분기말 101.1%로 전년동기대비 7.4%포인트 상승하였으며, 기업신용/명목GDP 비율은 110.1%로 같은 기간 9.2%포인트 높아졌다.

2020년 3/4분기말 가계신용은 주택 매매·전세 관련 대출이 크게 증가한 데다 생계자금 및 주식투자자금[5] 수요도 가세하면서 전년동기대비 8.3% 늘어나 금년 들어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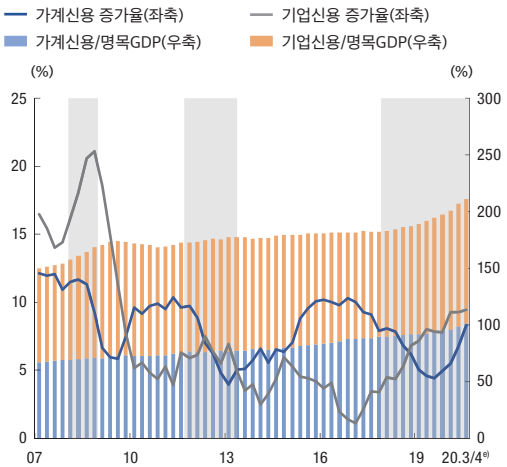
기업신용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9.5%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그림 Ⅰ-3).

민간 신용레버리지 국제비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민간신용의 증가는 전세계적 현상으로서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증가폭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20년 2/4분기말(BIS통계 기준) 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은 206.9%로 BIS 조사대상국 43개국 중 13위를 기록하였으며 코로나19 이전(19년말) 대비 변동폭은 9.9%포인트로 14위 수준을 보여 민간 신용레버리지 수준이나 변동폭이 글로벌 평균을 상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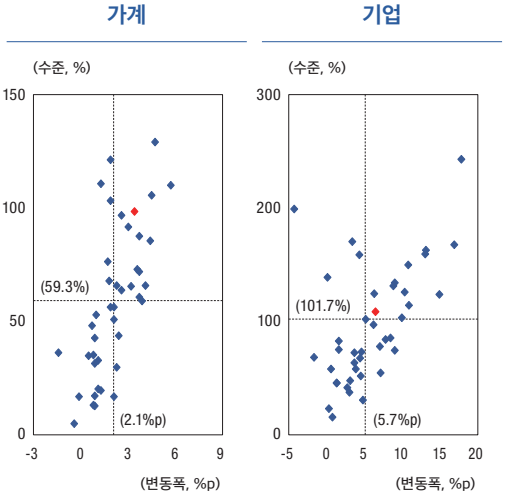
부문별로 보면 가계신용/명목GDP 비율이 2019년말 95.2%에서 2020년 2/4분기말 98.6%(7위)로 3.4%포인트 상승(11위)하였고, 기업신용/명목GDP 비율은 101.8%에서 108.3%(17위)로 6.5%포인트(17위) 높아졌다(그림 Ⅰ-4).

그림 Ⅰ-3. 부문별 신용 증가율 및 명목GDP 대비 비율[1)2)]



주: 1) 전년동기대비, 2020년 3/4분기는 추정치
2) 음영부분은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기준 경기수축 기간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Ⅰ-4. 민간신용/명목GDP 수준[1)] 및 변동폭[2)] 국제비교[3)]



주: 1) 2020년 2/4분기말 기준
2) 2019년말 대비 2020년 2/4분기말 기준
3) 점선은 43개국 평균, 붉은 표식은 우리나라를 의미
자료: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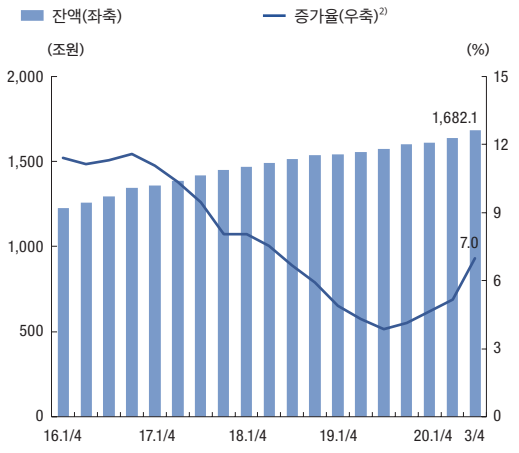
5) 개인투자자들의 고객예탁금 규모가 약 61.6조원(11월 30일 기준)으로 전년말 대비 125.3% 증가하였고 증권회사 신용융자 잔고도 같은 기간 94.3% 증가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년중 가계의 주식 투자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2. 가계신용

가계신용 증가세 확대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2020년 3/4분기말 1,682.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하여 지난해 4/4분기 이후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그림 Ⅰ-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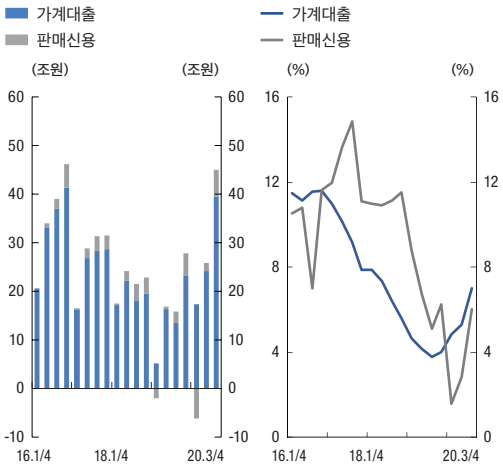
그림 Ⅰ-5. 가계신용[1)]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항목별로 보면 2020년 3/4분기말 가계대출이 1,585.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중에 크게 둔화되었던 판매신용도 온라인 거래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6.0% 늘어나 지난해 4/4분기 수준(6.3%)에 근접하였다(그림 Ⅰ-6). 한편 10월 이후에도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대출 모두 높은 증가세[6)]를 이어가고 있다.

그림 Ⅰ-6. 항목별 가계신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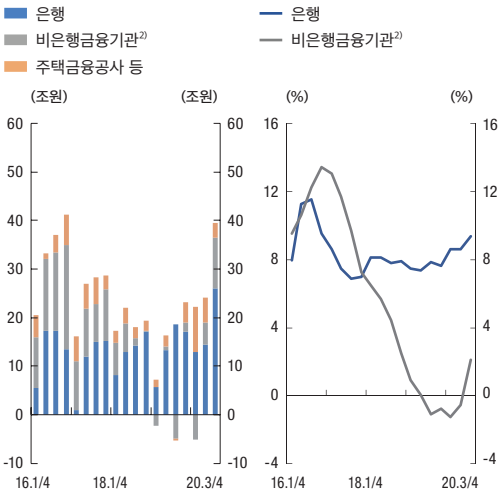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업권별로 보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20년 3/4분기말 821.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4% 증가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587.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하여 지난해 3/4분기 이후의 감소세에서 증가로 전환하였다(그림 Ⅰ-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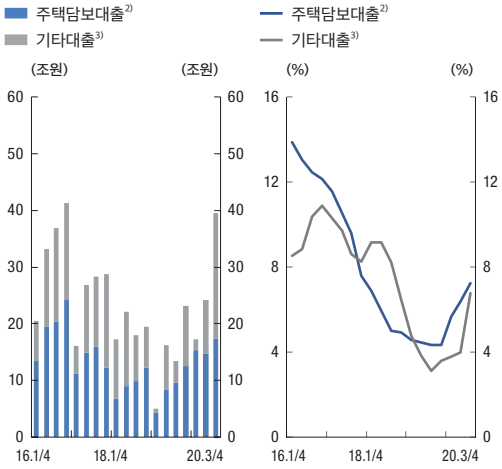
6) 2020년 10~11월중 전 금융권(은행, 상호금융, 보험,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31.9조원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이 각각 14.1조원, 17.7조원 늘어났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중 증가규모(15.0조원)를 크게 상회하였다.

그림 Ⅰ-7. 금융업권별 가계대출[1)]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등 제외)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Ⅰ-8. 대출유형별 가계대출[1)]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주택담보대출(예금취급기관 및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 취급분), 전세자금대출 등
3)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보증대출 등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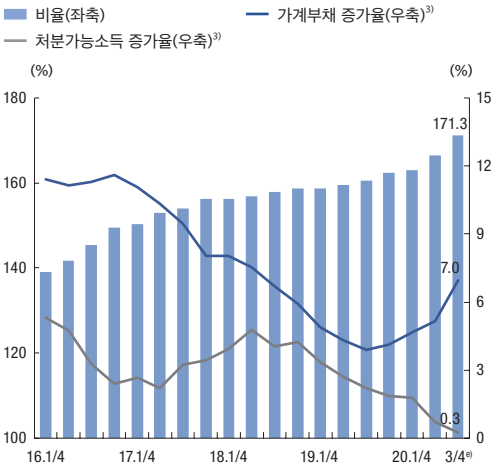
대출유형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2020년 3/4분기말 890.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하였다. 이는 주택거래량이 크게 늘어난[7)] 가운데 최근 들어 20~30대 등 청년층의 주택관련 자금수요가 확대[8)]된 데 주로 기인한다. 한편 기타대출은 695.2조원으로 금리 하락[9)], 생활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6.8% 늘어났다(그림 Ⅰ-8).

가계 채무상환부담 확대

2020년 3/4분기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신용통계 기준)은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소득 증가율이 정체된 반면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년동기(160.5%)보다 10.7%포인트 상승한 171.3%(추정치)를 기록하였다(그림 Ⅰ-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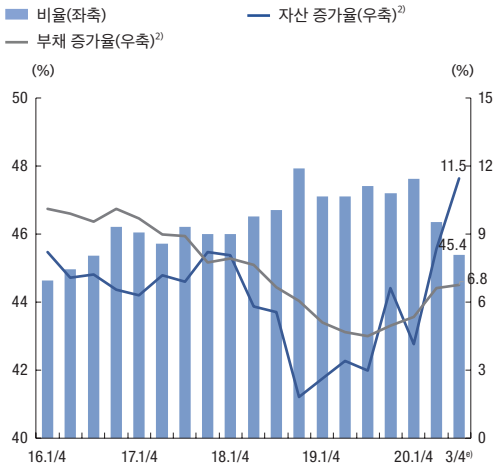
7) 2020년 7~9월중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거래량(확정일자 기준)은 각각 30.9만건, 53.4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55.9%, 13.3% 증가하였다.
8) 금년 3/4분기말 청년층의 주택관련대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0.6%로 동 기간중 여타 연령층 주택관련대출 증가율(5.9%)을 크게 상회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최근 청년층의 가계대출 현황 및 평가」(22쪽)를 참조하기 바란다.
9) 2020년 9월 기준 예금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89%로 전년말 대비 0.98%포인트 하락한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중 0.01%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그림 Ⅰ-9. 처분가능소득[1] 대비 가계부채[2] 비율



주: 1) 2020년 3/4분기 처분가능소득은 직전 3개년의 연간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 처분가능소득 비율 평균치를 이용하여 추정
2) 가계신용통계 기준
3)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Ⅰ-10.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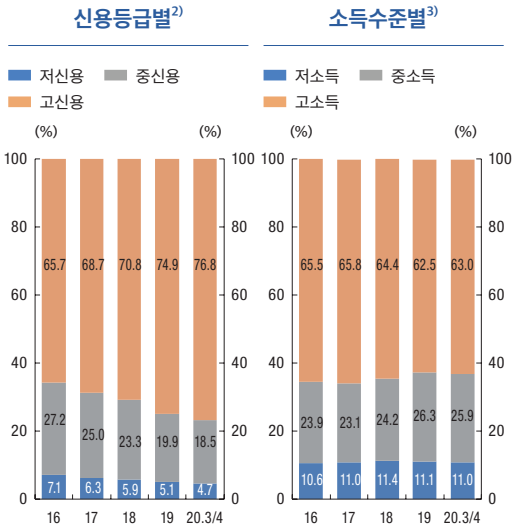
주: 1) 자금순환통계 기준(20년 3/4분기는 추정치)
2)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한편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자금순환통계 기준)은 2020년 3/4분기말 45.4%(추정치)로 전년동기(47.4%)보다 2.0%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최근 주식시장 호조로 주식평가액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예비적 동기 등에 따른 현금 및 예금 규모도 크게 늘어나면서 개인의 금융자산 증가율(전년동기대비 11.5%)이 금융부채 증가율(6.8%)을 큰 폭 상회한 데 기인한다(그림 Ⅰ-10).

취약차주 비중 하락

차주특성별 분포를 보면 고신용·고소득 차주의 대출비중이 꾸준히 상승하였다. 2020년 3/4분기말 고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비중은 76.8%로 전년말 대비 1.9%포인트 상승했으며 고소득 차주 비중도 63.0%로 전년말 대비 0.5%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Ⅰ-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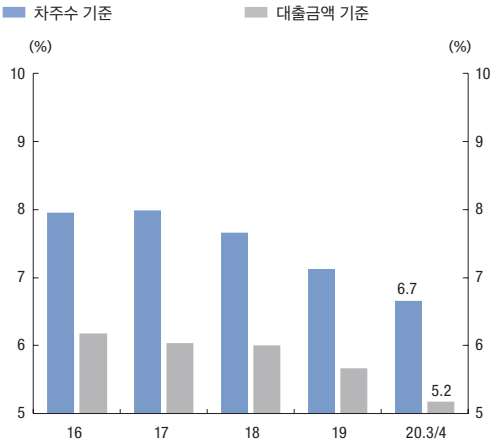
그림 Ⅰ-11. 신용등급 및 소득수준별 가계대출 구성비[1]



주: 1) 대출금액 기준
2) 고신용 1~3등급, 중신용 4~6등급, 저신용 7~10등급
3) 고소득 상위 30%, 중소득 30~70%, 저소득 하위 30%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또한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차주의 비중도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 계층에 속하는 취약차주는 2020년 3/4분기말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6.7%로 전년말 대비 0.4%포인트 낮아졌다. 취약차주가 보유한 대출금액이 전체 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2%(82.1조원)로 전년말(5.7%, 85.2조원)보다 하락하였다(그림 Ⅰ-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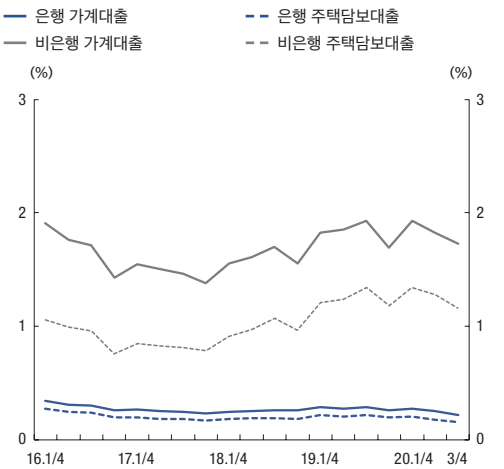
그림 Ⅰ-12. 취약차주 비중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가계대출 연체율은 은행대출의 경우 2020년 3/4분기말 0.22%로 전년동기대비 0.07%포인트 하락하였으며,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1.73%로 전년동기대비 0.20%포인트 하락하였다(그림 Ⅰ-13).

그림 Ⅰ-13.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1)2)] 가계대출 연체율[3]



주: 1)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약관대출 제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카드(판매신용 제외)·할부금융·리스자산 포함
3)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가계부채가 큰 폭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10]과 전반적인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11]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금리 수준, 원리금 상환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 조치 등의 영향으로 아직까지는 신용위험이 현재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소득여건 개선이 미약할 경우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늘어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0) 자세한 내용은 <참고 2> 「향후 자영업자 재무건전성 전망」(28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11) 자세한 내용은 <금융안정 현안 분석> 「Ⅰ. 최근 가계대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103쪽)를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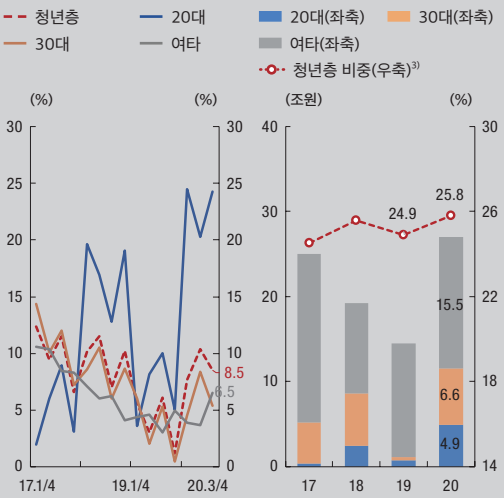
최근 청년층의 가계대출 현황 및 평가

금년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대 및 30대(이하 '청년층')의 가계대출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청년층의 가계대출 현황 및 증가 배경, 채무상환능력 등을 점검해 보았다.

현 황

(대출규모) 청년층의 가계대출은 금년 3/4분기말 409.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5% 늘어나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7.0%)을 상회하였다. 특히 금년중 청년층의 분기평균 가계대출 증가액(+11.5조원)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27.0조원)의 42.7%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층이 전체 가계대출 잔액(1,586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말 24.9%(20대 4.2%, 30대 20.7%)에서 금년 3/4분기말 25.8%(20대 4.9%, 30대 20.9%)로 상승하였다.

청년층의 가계대출[1] 증가율[2]



분기평균 증감액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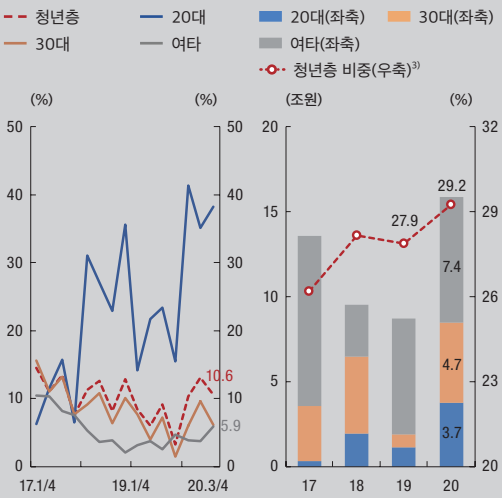
주: 1) 기말 기준
2) 전년동기대비
3) 가계대출 잔액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 2020년은 3/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대출종류별) 금년 3/4분기말 현재 청년층의 주택관련대출은 260.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6% 증가하였다. 특히 금년중 주택관련대출 분기평균 증가액(+15.8조원)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53.4%(+8.5조원)로 지난해(21.4%)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층이 전체 주택관련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2%로 지난해말(27.9%)보다 상승하였다. 한편 청년층의 주택관련대출 증가액(+8.5조원) 중 전세자금대출이 85.1%에 달하는 등 전세자금대출이 청년층의 주택관련대출 증가세를 주도하였다.

청년층의 주택관련대출[1] 증가율[2]

분기평균 증감액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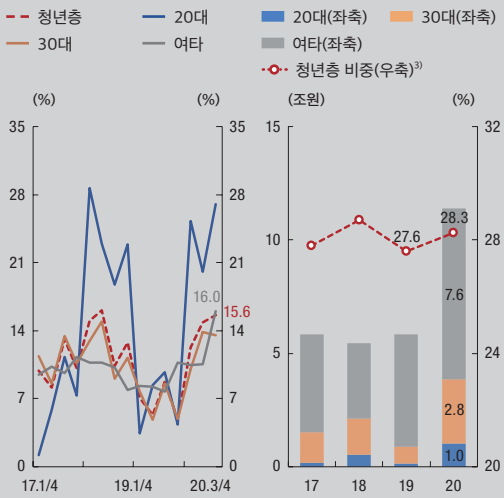


주: 1) 기말 기준
2) 전년동기대비
3) 전체 주택관련대출 잔액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 2020년은 3/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청년층의 신용대출[1] 증가율[2]

분기평균 증감액 및 비중



주: 1) 기말 기준
2) 전년동기대비
3) 전체 신용대출 잔액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 2020년은 3/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청년층 주택관련대출 증감 및 잔액[1]

(조원, %)

	청년층		전체	
	20.1~9월중 분기평균 증감액	20.3/4말 잔액	20.1~9월중 분기평균 증감액	20.3/4말 잔액
전세자금대출 (A)	+7.2 (85.1)	87.6 (33.7)	+10.6 (67.0)	151.1 (17.0)
주택담보대출 (B)	+1.3 (14.9)	172.6 (66.3)	+5.2 (33.0)	739.3 (83.0)
주택관련대출 (A+B)	+8.5 (100.0)	260.2 (100.0)	+15.8 (100.0)	890.4 (100.0)

주: 1) ( ) 내는 주택관련대출 중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청년층의 신용대출은 89.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6% 증가하였다. 특히 금년중 신용대출 분기평균 증가액(+11.4조원) 중 청년층의 비중은 33.6%(+3.8조원)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층이 전체 신용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3%로 지난해말(27.6%)보다 상승하였다.

증가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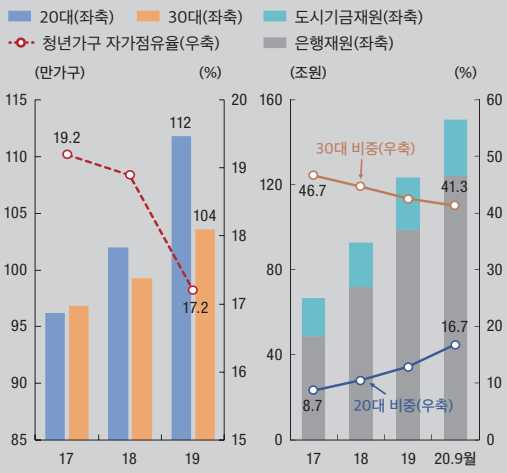
(전월세자금 대출 증가)

청년층 1인가구 증가 및 정부의 청년가구(만 24~34세) 주거안정 지원 확대 등으로 청년층의 전월세자금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였다. 청년층 1인가구 수는 20대를 중심으로 증가한 데 반해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꾸준히 하락(17년 19.2% → 19년 17.2%)하면서 이들의 전월세 대출 수요가 확대되었다. 한편 2018년 이후 정부는 20~30대 초반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월세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정부의 주요 청년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상품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18년 1월 도입),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18년 6월), 청년 맞춤형 전월세자금(19년 5월) 등이 있다. 이들 대출상품의 2020년 1~10월중 대출실적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과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

증금대출 등이 7.4조원, 청년 맞춤형 전월세자금 보증실적은 2020년 1~9월중 2.1조원이다. 금년 9월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6.7%로 2017년말 8.7%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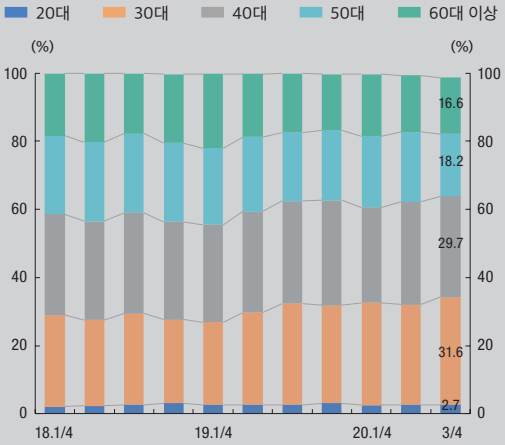
청년층 1인가구 수 및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

전세자금대출[1] 규모 및 청년층 비중[2]



주: 1)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과 협약을 맺은 은행을 통해 주로 취급되기 때문에 비은행금융기관 취급규모는 작음
2)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통계청

연령별[1] 서울·수도권 주택거래[2] 비중



주: 1) 공동매수의 경우 대표매수자의 연령 기준
2)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대상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자금조달계획서)

(30대의 주택매입 수요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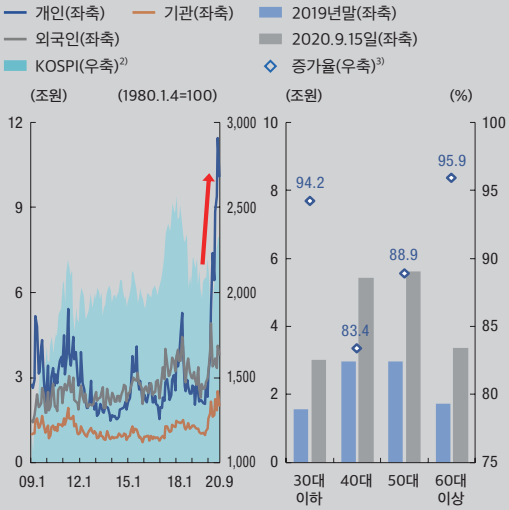
금년 들어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으로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30대의 거래가 빠르게 늘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청년층의 경우 주택매입 시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1]

(주식 투자자금 수요 증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가 급락 이후 개인의 주식투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청년층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자금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모든 연령층의 신용융자[2]가 확대된 가운데 30대 이하 신용융자 증가율(94.2%)은 60대 이상(95.9%)과 함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신용융자의 높은 금리[3] 및 짧은 만기, 엄격한 신용공여 한도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대출 조건이 좋은 청년층의 신용대출 상당 부분도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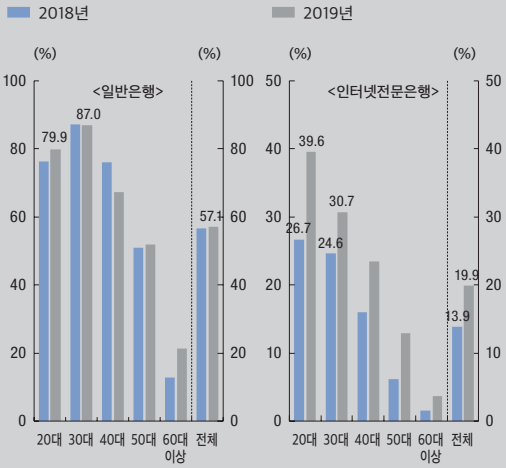
1) 청년층의 주택매입자금 중 금융기관 차입 비중은 금년 1~9월중 30대 29.1%, 20대 26.1%로 여타 연령층(40대 22.0%, 50대 16.7%, 60대 이상 9.2%)보다 높은 수준이다.
2) 개인이 일부는 투자자 자신의 자금으로 나머지는 증권회사로부터 융자를 받아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로 통상 90일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증권회사는 담보가치비율(주식평가액/융자금액) 기준치 하회 시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하며, 추가담보 미납 시 임의로 처분한다.
3) 2020년 9월말 기준 신용융자 이자율은 5.75(1~7일)~8.75%(180일 초과)이고 2020년 9월중 예금은행 신용대출 금리(신규취급액)는 2.89%이다(자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체별 주식거래규모[1] 연령별 신용융자 잔고 추이



주: 1) 코스피시장 기준(월평균)
2) 기말 기준
3) 2020년 9월 15일 기준 전년말 대비
자료: KOSCOM, 금융감독원

일반[1]·인터넷전문은행의 연령별 모바일뱅킹 이용행태[2]



주: 1)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제외한 시중은행, 특수은행 등을 포함
2) 2,65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결과
자료: 한국은행

(비대면 신용대출 확대)

한편 인터넷전문은행[4] 출범, 핀테크 혁신 등에 따라 모바일기반 비대면 신용대출 영업경쟁이 심화된 것도 이러한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의 대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청년층을 주고객층으로 설정하고 신용대출 영업을 확대한 데다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시중은행도 대출 한도 및 금리 우대혜택을 비대면 상품에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은행대출 증가액에서 전자금융경로를 통한 대출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중 28.7%에서 2020년 1~9월중 34.2%로 상승하였다.

채무상환능력 평가

(레버리지) 청년층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 Loan to Income) 수준은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꾸준히 상승하여 금년 3/4분기말 221.1%로 여타 연령층 수준(227.6%)에 근접하였다. 30대의 경우(254.9%)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금년 들어 상승세가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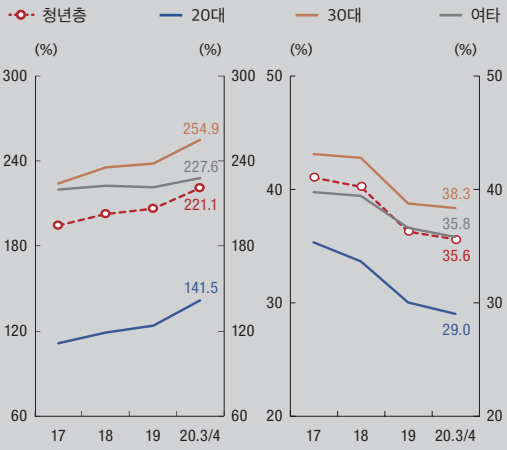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DSR) 청년층의 DSR은 35.6%로 2017년 이후 여타 연령층보다 큰 폭 하락하였다. 이는 동 기간중 대출금리 하락, 가계대출 평균만기 장기화 등 공통 요인 외에도 청년층 차주의 경우 비교적 금리 수준이 낮은 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은 데다[5] 이자만 납입하는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인터넷전문은행 가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30대 가입자가 전체의 약 60%(케이뱅크 94만명, 카카오뱅크 785만명)를 차지하였다.
5) 청년층의 가계대출 중 은행권 대출 비중은 2020년 3/4분기말 70.3%로 2017년말(63.4%)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주택관련 대출의 경우 청년층의 은행권 대출 비중은 75.3%, 신용대출은 81.4%로 여타 연령층(68.5%, 70.3%)에 비해 모두 높은 수준이다.

(취약차주) 청년층 중 취약차주[6] 수는 금년 3/4분기말 45.5만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층 전체 차주 대비 비중(7.2%)도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다만 여타 연령층(6.4%)에 비해서는 취약차주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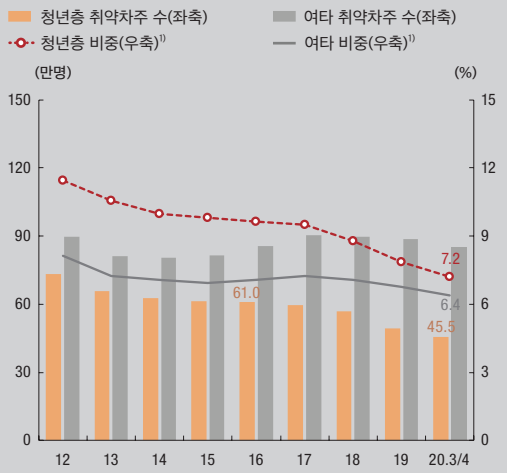
(저소득·저신용 차주 비중) 청년층 가계대출 차주 중 저소득 차주(하위 30%) 비중은 금년 3/4분기말 25.4%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20대의 경우 아직 절반 정도(46.8%)가 저소득 차주로 나타났으나 2012년 이후 동 비중의 하락폭은 17.7%포인트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컸다. 한편 청년층의 저신용 차주(7~10등급) 비중은 전반적인 신용등급 개선 추세[7] 등에 힘입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금년 3/4분기말 11.0%로 여타 연령층과 비슷한 수준(20대 9.9%, 30대 11.6%)을 보였다.

연령대별 레버리지(LTI)[1] 연령대별 DSR[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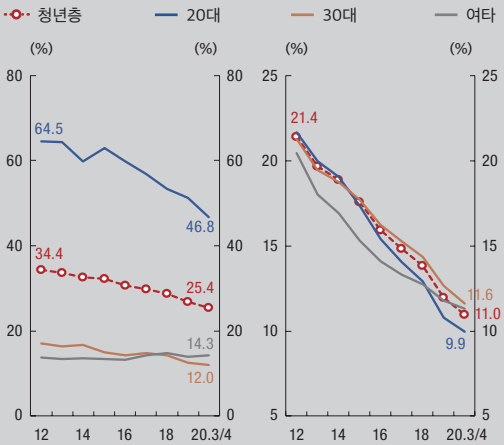
주: 1) 가계대출 차주 기준.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청년층 취약차주 수



주: 1) 청년층(여타) 전체 차주 수 대비 취약차주 수 비중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청년층 저소득[1] 차주 비중[2] 청년층 저신용[1] 차주 비중[2]



주: 1) NICE 신용이력 보유자의 소득 중 하위 30%를 저소득으로, 신용평가등급(총 10등급) 중 7~10등급을 저신용 등급으로 분류
2) 기말 차주 수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연체율) 청년층 차주의 연체율은 여타 연령층보다 소폭 낮은 수준에서 대체로 하락하여 금년 3/4분기말 0.47%를 기록하였다. 특히 30대의 연체율(0.42%)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전 연령대에서 최저 수준을 나타내었다. 한편 청년층 차주 중 연체차주 비중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금년 3/4분기말에는 여타 연령층(1.99%)보다 낮은 1.71%를 기록하였다.

6) 다중채무자(금융기관 대출 3건 이상)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차주를 의미한다.
7) 가계대출의 연체율 하락, 정부의 개인신용 회복 지원노력,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신용등급이 2012년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청년층 가계대출 연체율[1)] **청년층 연체차주[1)] 비중**



주: 1)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상 연체액, 연체기간, 가계대출 포괄범위 등과 차이가 있음.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시사점

청년층 가계대출 증가는 청년층의 전월세 및 주택매입 수요 증가, 주식투자 수요 확대 등 수요측 요인에다, 청년층의 접근성이 높은 비대면 신용대출 확대, 정부의 청년층 전월세자금대출 지원 강화 등 공급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하였다.

청년층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채무상환부담은 아직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층 가계대출은 비교적 금리 수준이 낮은 은행권의 보증부 또는 담보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DSR도 하락한 가운데 연체율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30대를 중심으로 레버리지(LTI)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취약차주 비중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가계대출 증가는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나 최근과 같은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8)] 따라서 청년층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신용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점진적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8) 아울러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의 부채 증가는 경제 전체의 소비여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 2.

향후 자영업자 재무건전성 전망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대면 거래를 통해 주로 영업하는 자영업자[1]를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단계 조정으로 경제주체의 소비활동이 크게 위축된 데다 국경 봉쇄(lockdown)에 따른 해외 관광객의 수요도 급감하면서 업황 부진이 심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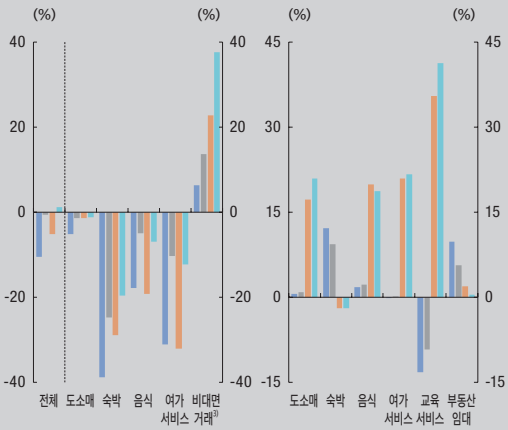
이하에서는 가계부채DB, 가계금융·복지조사(19년) 등의 미시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가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 등에 미친 영향과 함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2]의 효과를 추산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최근 자영업자 동향

자영업자 매출은 코로나19 확산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3] 지급 등의 요인에 따라 감소폭이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로는 비대면 거래의 매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숙박, 여가서비스, 음식이 큰 폭의 매출 감소를 기록하였다.

2020년 9월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777.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9%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음식, 여가서비스 등에서 대출이 크게 증가하여 매출 감소에 따른 운전자금 부족분을 대출을 통해 일부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매출 및 대출 동향



주: 1) 사회적 거리두기(3월 22일~5월 5일),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5월 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8월 19일), 2.5단계(8월 30일) 격상(수도권) 등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 인터넷상거래 및 통신·우편판매 기준
4) 종사업종 식별이 가능한 자영업자 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여신금융협회

1) 자영업자 가구는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종사자, 기타 종사자(학습지 교사 등)인 가구를 포괄한다.
2) 정부 및 금융기관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해 원리금 상환유예를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조치는 2021년 3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금융위 보도자료, 20년 3월 31일 등).
3) 정부는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국 2,216만 가구에 총 14조 2,357억원을 지급하였다. 지원금은 마트·식료품(2.5조원, 전체 사용액 대비 26.3%), 대중음식점(2.3조원, 24.3%), 병원·약국(1.2조원, 10.6%), 주유소(0.6조원, 6.1%) 등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재무건전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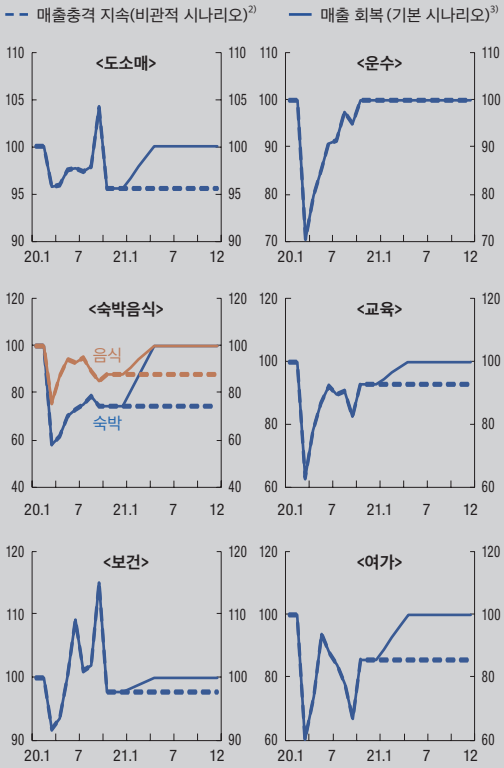
시나리오

전체 자영업자 가구 중 매출충격이 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가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4]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총소득이 필수지출[5]을 하회하는 가구를 '적자가구'로 식별하였다. 적자가구 중에서도 금융자산[6]을 활용하여 적자에 대응할 수 없는 가구를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가구'로, 자산이 부채를 하회하여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에 처하게 되는 가구를 '상환불능(insolvency risk)가구'로 구분하였다.

향후 자영업 업황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등으로 내년 2/4분기 이후 매출액이 충격 전 수준에 도달하는 상황(기본 시나리오)과 금년 10월 매출현황이 2021년말까지 지속되는 상황(비관적 시나리오) 등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한편 각 시나리오에 대해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20년 4월 1일~21년 3월 31일 시행)의 효과를 분석[7]해 보았다. 아울러 내년 3월 후에도 동 유예 조치가 연장되는 경우의 효과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매출액 변화[1]



주: 1) 충격 전(20년 1~2월)의 매출액을 100으로 지수화
2) 2020년 10월의 매출액이 이후에도 지속
3) 2020년 10월의 매출액이 연말까지 지속되다가 2021년 1/4분기중 점진적으로 회복하여 2/4분기부터 충격 이전 수준을 회복

자료: 여신금융협회, 한국은행 시산

테스트 결과

2020년 2월 대비 2021년 12월 수지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주요 업종의 자영업자 가구 중에서 흑자 상태를 지속하는 가구 비중이 79.2%에 달한다. 반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가구는 1.5%, 적자 상

4)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보이는 주요 업종(도소매, 운수창고, 숙박음식, 부동산, 교육, 보건, 여가, 기타 개인서비스)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동 주요 업종은 244만 가구로 전체 자영업자 가구(453만)의 53.8%를 차지한다.

5) 총소득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필수지출에는 생계유지 등을 위한 최소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의료, 통신, 식비 등 불가피한 소비지출, 세금 등의 비소비지출, 원리금상환액 등을 포함하였다.

6) 금융자산에는 저축, 펀드, 보험, 주식 등을 포함하였으며, 보험은 70% 해지환급률을 적용하였다.

7) 원리금 상환유예 신청요건(지원 대상, 적용대상 대출 등), 금융기관의 집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전체 자영업자 중 원리금 상환유예를 적용받는 가구는 약 50%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태를 지속하는 가구는 18.8%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로 오히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0.5%)되었다.

코로나19 충격 전후[1] 자영업 가구의 수지 변화[2]

(만가구, %)

	가구 수	비중
전체 가구	243.7	(100.0)
흑자가구	194.2	(79.7)
흑자 → 흑자	193.1	(79.2)
적자 → 흑자	1.2	(0.5)
적자가구	49.5	(20.3)
흑자 → 적자	3.7	(1.5)
적자 → 적자	45.7	(18.8)

주: 1)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2020년 2월, 2021년 12월의 수지상황을 비교
2) 주요 업종 자영업자 가구 수 기준
자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시산

(적자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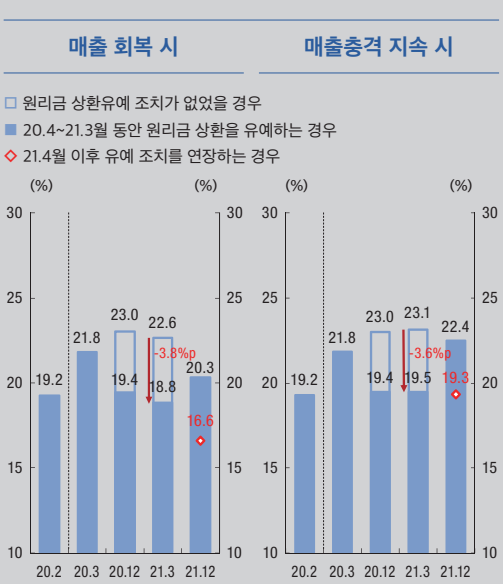
자영업자의 적자가구 증감은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시행 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가구 비중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이 나타나기 직전인 2020년 2월 19.2%(주요 업종 자영업자 가구 수 대비, 이하 동일)에서 충격 직후 3월 21.8%로 상승하였다가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에 힘입어 내년 3월에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는 18.8%,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19.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 이후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유예되었던 원리금의 분할상환 부담이 추가되면서 적자가구 비중이 내년 12월에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20.3%,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22.4%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충격이 크게 나타난 금년 3월 수준(21.8%)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년 4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효과를 살펴보면, 내년 3월까지 적자가구 비중을 3.6~3.8%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의 조치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내년 12월에 기본 및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적자가구 비중이 16.6%, 19.3%의 낮은 수준을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수지 적자가구[1]의 비중[2] 변화



주: 1) 2020년 1월부터 해당 시점까지의 누적 가계수지 기준
2) 주요 업종 자영업자 가구 수 대비
자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시산

(유동성 위험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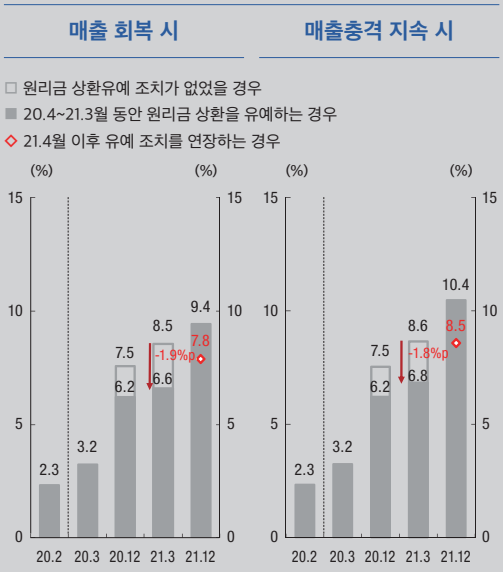
자영업자 적자가구 중에서 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하는 유동성 위험가구는 정부의 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충격 이전부터 적자 상태였던 가구의

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보유 금융자산을 소진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데 주로 기인한다.

유동성 위험가구 비중은 2020년 2월 2.3%에서 2020년 3월 3.2%로 상승하고 내년 3월에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6.6%,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6.8%로 큰 폭 상승하여 금년 3월의 약 2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1년 12월에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9.4%,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10%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내년 3월까지 유동성 위험가구 비중을 1.8~1.9%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정부의 조치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내년 12월 7.8%, 8.5%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 유동성 위험가구[1]의 비중[2]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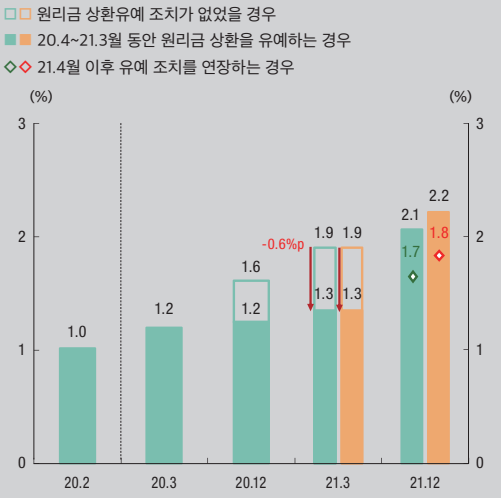
주: 1) 2020년 1월부터 해당 시점까지의 누적 가계수지 적자가 금융자산을 초과하는 가구
2) 주요 업종 자영업자 가구 수 대비
자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시산

(상환불능가구)

자영업자 적자가구 중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상환불능가구를 살펴보면, 상환불능가구 비중은 2020년 2월 1.0%에서 2020년 3월 1.2%로 상승하고, 내년 3월에는 두 시나리오 하에서 모두 1.3%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2월에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2.1%,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2.2%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내년 3월에는 상환불능가구 비중을 0.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정부의 조치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내년 12월에 기본 및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1.7%, 1.8%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

자영업자 상환불능가구[1]의 비중[2] 변화[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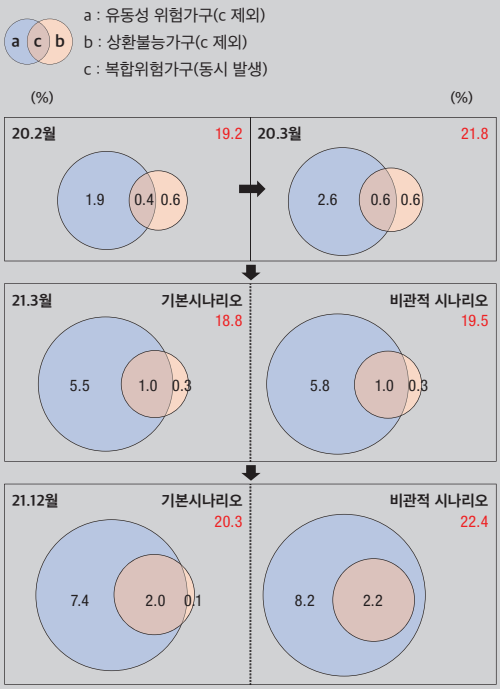


주: 1) 2020년 1월부터 해당 시점까지의 누적 가계수지 적자가 순자산을 초과하는 가구
2) 주요 업종 자영업자 가구 수 대비
3) 초록색, 주황색은 각각 매출이 회복되는 경우, 매출충격이 지속되는 경우를 나타냄
자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시산

(유동성 위험 및 상환불능 가구 전이 형태)

자영업자 가구의 리스크 변화를 살펴보면 적자가구 비중은 정부의 조치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반면, 유동성 위험가구와 상환불능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동성 위험과 상환불능에 동시에 처하는 가구(복합위험가구) 비중이 2020년 2월 0.4%에서 2021년 12월 2.0~2.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복합위험가구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이 해소된 이후에도 재무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8)]

자영업자 유동성 위험가구와 상환불능가구의 변화[1)2)]



주: 1) 주요 업종 자영업자 가구 수 대비 비중
2) 붉은색 글씨는 적자 자영업자 가구의 비중을 나타냄
자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시산

시사점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적자가구, 유동성 위험 및 상환불능 가구 증가가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대응조치로 인해 상당 부분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년 4월 이후 지원조치가 종료되면서 적자가구 비중이 다시 상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시적인 금융지원 조치로는 자영업자가 직면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유동성 위험가구 및 상환불능가구의 경우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연장 시에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적자 상태에 있던 가구의 경우에는 매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데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충격 지속으로 향후 자영업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경우 자영업자의 재무상황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인지, 상환불능 상태인지를 구별[9)]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10)]

아울러 자영업자의 매출충격이 대면거래 업종에 집중된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소비행태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8) 본고의 분석에서는 복합위험가구의 경우 매출 회복 시에도 단일위험(유동성 위험 또는 상환불능)이나 단일위험 이전 상태로 전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이면 특정 업종(부동산 매매·임대, 사행성 등 관련 업종)이나 연체 중인 업체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리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0) 자영업자에 대한 폐업정보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로 살펴보면, 유동성 부족기업(유동비율 100% 미만)의 1년 이내 폐업률은 자본잠식(순자산<0)에 처하지 않은 경우 0.8%에 그치지만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는 8.1%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동성 부족 및 자본잠식이 동시에 발생한 차주의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한국은행 시산, 20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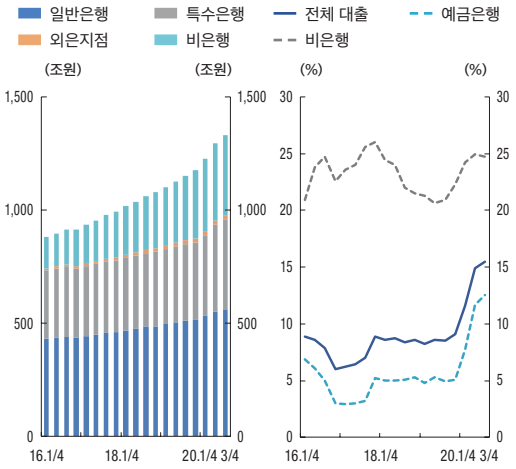
3. 기업신용

기업신용 증가세 지속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은 2020년 3/4분기말 현재 1,332.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5% 늘어나 높은 증가세를 이어나갔다. 향후에도 기업대출은 정부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12]

금융업권별로 보면,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 예금은행 기업대출은 2020년 3/4분기말 975.6조원(일반은행 563.1조원, 특수은행 394.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5%(일반은행 10.0%, 특수은행 16.1%) 증가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13] 기업대출은 356.6조원[14]으로 상호금융조합(36.0%)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24.7%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그림 Ⅰ-14).

그림 Ⅰ-14. 금융기관[1] 기업대출



주: 1) 은행은 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외은지점, 비은행금융기관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준
2) 기말 기준,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기준
3)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기업규모별[15]로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대출이 큰 폭 증가하였다. 대기업대출(211.3조원, 전년동기대비 17.0%)은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 노력 등으로, 중소기업대출(1,118.1조원, 14.7%)의 경우에는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중소법인 610.6조원, 14.7%, 개인사업자 507.5조원, 14.8%)(그림 Ⅰ-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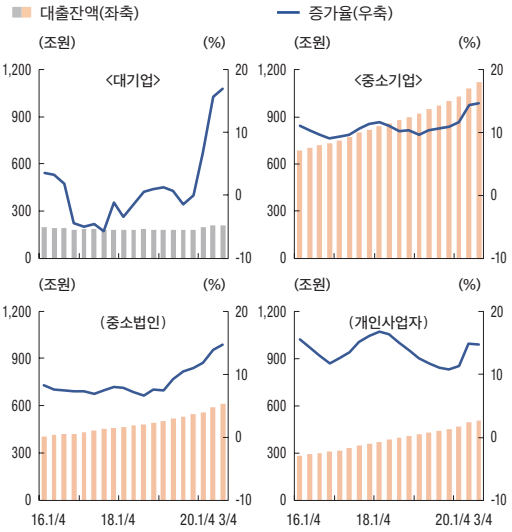
12) 정부가 9월 23일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개편(사업자별 한도 증액 등)하였으며, 한국은행도 9월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8조원 증액하였다. 이에 기업대출은 4/4분기중에도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은행 기업대출 증가폭: 10월 +9.2조원 → 11월 +6.7조원).

13) 비은행금융기관(이하 '비은행') 기업대출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기준이다. 다만 자료 제약으로 인해 일부 업권은 금융보험업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14)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조합 191.5조원(비은행 기업대출 중 53.7%), 보험회사 85.9조원(24.1%), 여신전문금융회사 45.5조원(12.8%) 및 저축은행 33.7조원(9.4%)이다. 특히 상호금융조합은 전년동기대비 36.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데다 연체율도 다소 높아졌다(19년 3/4분기말 2.83% → 20년 3/4분기말 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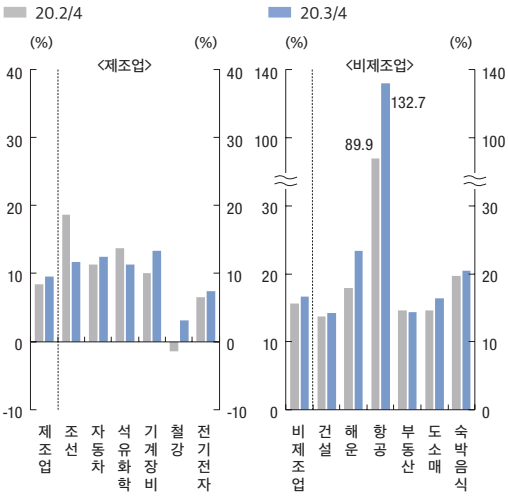
15) 자료의 제약으로 기업규모별 대출 분석 시 기업규모가 구분되지 않는 비은행 업권의 대출 일부(보험회사 약관대출)는 제외하였다.

그림 Ⅰ-15. 기업규모별 기업대출[1)2)]



주: 1)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합산 기준
2) 기말 기준(금융 및 보험업 제외),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Ⅰ-16. 주요 업종별 금융기관 기업대출 증가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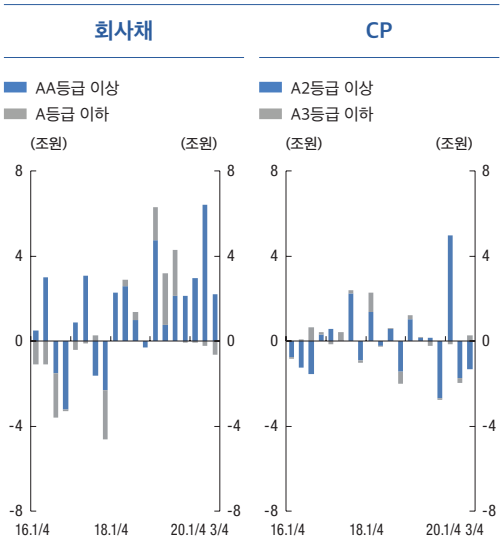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업종별로 보면[16)] 대부분의 업종에서 대출이 늘어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충격을 크게 받은 항공, 해운, 숙박음식 등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그림 Ⅰ-16).

직접 금융시장에서는 기업의 유동성 확보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행과 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에 힘입어 신용경계감이 완화되면서 회사채가 순발행되었다. 다만 비우량물은 차환발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으면서 순상환되었다. CP도 장기물인 회사채 선호가 높아지면서 순상환되는 모습이다(그림 Ⅰ-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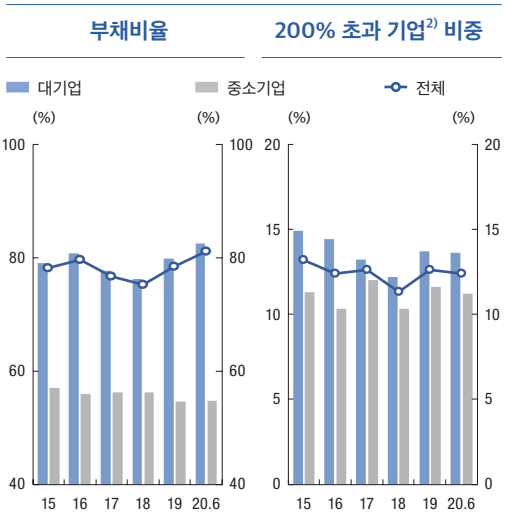
16) 일부 업권(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대출은 업종 분류가 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Ⅰ-17. 기업의 직접 금융시장 조달[1] 동향



주: 1) 금융지주회사, 유동화회사(SPC) 발행분 제외, 순발행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그림 Ⅰ-18. 기업규모별 부채비율[1]



주: 1) 부채/자기자본, 기말 기준
2) 완전자본잠식 기업 포함
자료: KIS-Value

부채비율 상승

기업[17]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2019년 말 78.5%에서 2020년 상반기말 81.1%로 상승하였다. 다만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과다부채 기업)의 비중(12.4%)은 지난해말(12.6%)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18](그림 Ⅰ-18).

성장성 및 수익성 크게 저하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크게 악화되었다. 매출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020년 상반기중 -7.0%로 전년동기(-0.8%) 대비 큰 폭 하락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1.9%)이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대기업은 크게 감소(-7.3%)하였다.[19]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도 업황 부진으로 영업이익[20]이 크게 감소(전년동기대비 -23.5%)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하락(19년 상

17) 이하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상장기업 및 일부 비상장기업 중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총 2,158개 기업(대기업 1,105개, 중소기업 1,053개)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표본기업이 기업경영분석과 달라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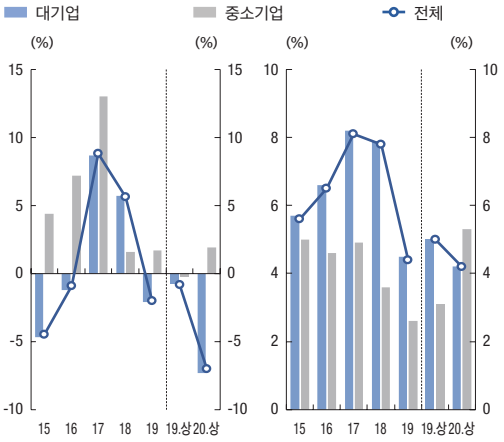
18) 이는 금년 상반기중 기업 부채가 부채비율 200% 이하 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19) 중소기업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기계장비(10.2%), 의료화학(37.1%), 정보서비스(11.4%)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증가한 반면, 대기업은 코로나19 충격을 받은 숙박음식(-40.8%), 항공(-38.7%), 석유화학(-19.9%), 조선(-18.8%) 등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20) 2020년 상반기중 영업이익은 석유화학, 조선, 항공, 숙박음식 등에서는 적자전환되었으며, 자동차(전년동기대비 -34.8%), 도소매(-30.7%), 운수(-10.9%) 등에서도 크게 감소하였다.

반기 5.0% → 20년 상반기 4.2%)하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매출액과 유사하게 중소기업(3.1% → 5.3%)이 상승[21]한 반면 대기업은 하락(5.0% → 4.2%)하였다(그림 Ⅰ-19).

그림 Ⅰ-19. 기업규모별 매출액 증가율[1] 및 매출액영업이익률[2]



주: 1) 전년동기대비
2) 영업이익/매출액
자료: KIS-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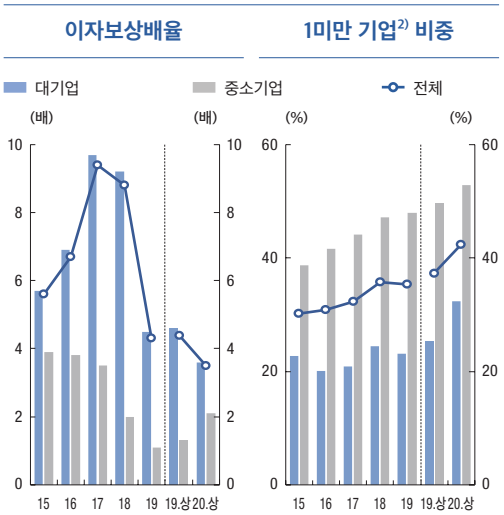
이자지급능력 약화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비교적 큰 폭 하락(19년 상반기 4.4배 → 20년 상반기 3.5배)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상승(1.3배 → 2.1배)한 반면 대기업은 하락(4.6배 → 3.6배)하였다.

이자지급능력이 취약한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은 2019년 상반기 37.3%에서 2020년 상반기 42.4%로 크게 상승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49.7% → 52.8%)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도 금년 상반기중에 동 비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25.3% → 32.4%)하였다(그림 Ⅰ-20).

한편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의 여신 비중[22]은 2020년 상반기말 36.1%로 전년말(28.3%) 대비 7.8%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금년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데 주로 기인한다.

그림 Ⅰ-20. 기업규모별 이자보상배율[1]



주: 1) 영업이익/이자비용
2) 영업손실기업 포함
자료: KIS-Value

21)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이자보상배율이 상승한 것은 매출이 호조를 보인 기계장비(19년 상반기 매출액영업이익률 4.3% → 20년 상반기 6.9%), 의료화학(2.9% → 16.0%), 정보서비스(6.0% → 12.2%) 등의 수익성이 개선된 데 주로 기인한다. 다만 본고의 분석에서 제외된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이자보상배율이 크게 낮을 수 있다.

22)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기업의 여신 비중(%, 기말기준, 자료: KIS-Value, 한국신용정보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6
비중	35.6	24.1	20.3	26.6	28.3	36.1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책당국의 금융지원, 기업의 유동성 확보 노력 등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이 크게 늘어났다. 향후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경우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 경영여건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기업의 실적 회복 지연에 따른 유동성 부족 및 신용위험 현재화 가능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23)]

23) 자세한 내용은 <금융안정 현안 분석> 「Ⅱ. 코로나19 장기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114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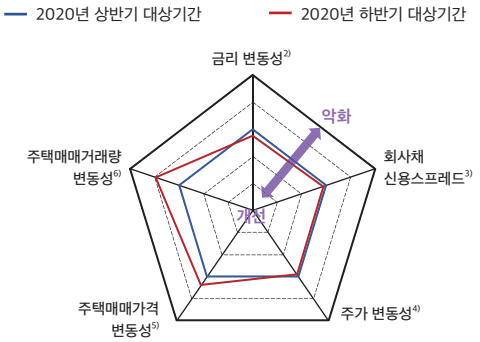
Ⅱ. 자산시장

국고채 금리는 국고채시장 수급 불균형 우려, 주요국 금리 오름세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였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신용증권시장 지원대책[1] 등으로 축소되었으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주가는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일시 조정받기도 하였으나 주요국의 완화적인 정책기조 유지, 경제지표 개선 및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큰 폭 상승하였다.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연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8월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다가 11월 들어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그림 Ⅱ-1).

그림 Ⅱ-1. 자산시장 상황 변화 지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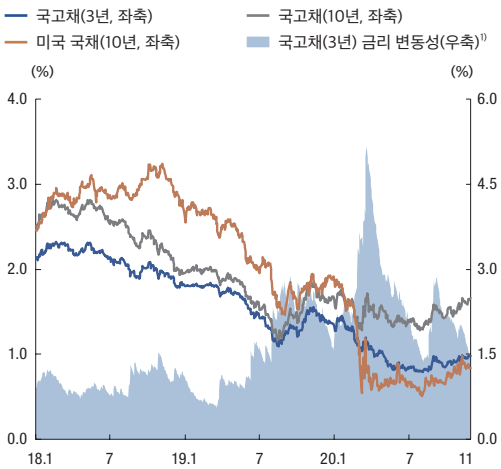
주: 1) 2019년 12월~2020년 5월의 6개월간 실적을 기준치로 2020년 6~11월중(주택매매거래량은 20년 6~10월중)의 6개월간 변화 정도를 지수화
2) 국고채(3년) 금리의 일별 변동성을 지수가중이동평균(EWMA) 방식으로 산정
3) 회사채(A- 등급) 금리 - 국고채(3년) 금리, 2020년 5월말 대비 2020년 11월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4) V-KOSPI 기준
5) 주택매매가격지수의 월별 변동성을 지수화
6) 주택매매거래량의 월별 변동성을 지수화
자료: 한국은행

1. 채권시장

장기시장금리 상승

국고채 금리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발표 및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채권수급 부담 등으로 9월초까지 상당폭 상승하였다. 이후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발표(9월 8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반락하여 9월말 0.80%대 초반으로 낮아졌다. 10월 이후에는 향후 미국의 경기부양 확대 전망,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등에 영향받아 주요국과 동반[2]하여 큰 폭 반등하였다(그림 Ⅱ-2, 그림 Ⅱ-3).

그림 Ⅱ-2. 국고채 및 미국 국채 금리



주: 1) 지수가중이동평균(EWMA)에 의거 일별 변동성 산출
자료: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1) 한국은행은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과 협력하여 10조원 규모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 지원기구(SPV)」를 설립하고 7월 24일부터 회사채·CP 매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 특히 미국 국채(10년) 금리는 10월 1일~11월 3일중 22bp 상승하였다.

그림 Ⅱ-3.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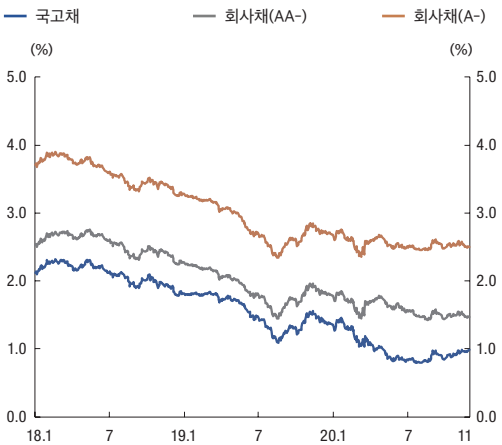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소폭 축소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회사채 금리가 국고채 금리와 달리 다소 하락하거나 횡보함에 따라 소폭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Ⅱ-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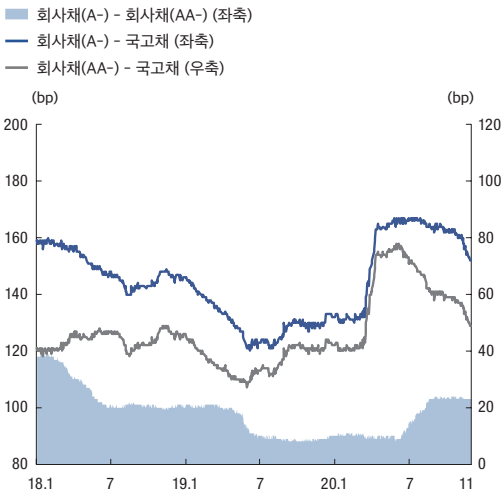
그림 Ⅱ-4. 회사채 및 국고채 금리[1)]



주: 1) 3년물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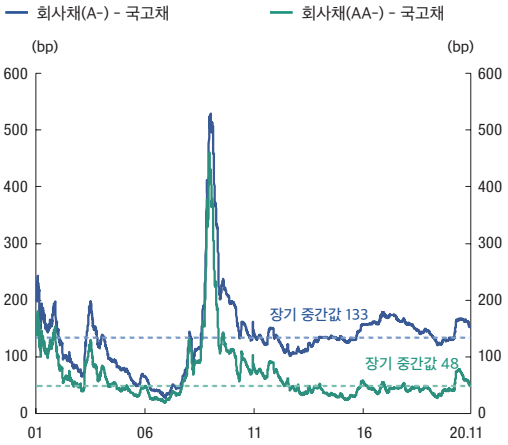
우량물(AA- 기준) 신용스프레드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신용증권시장 지원대책 등의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호전되면서 7월초 71bp에서 11월말 현재 49bp로 축소되었다. 비우량물(A- 기준) 신용스프레드도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가동(7월 24일) 이후 축소되었으나 그 폭은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상대적 취약성 등으로 우량물보다는 작았다(7월초 166bp → 11월말 152bp). 이를 반영하여 신용등급 간 스프레드(A- 및 AA- 기준)도 7월 이후 확대되었다(그림 Ⅱ-5). 코로나19 확산으로 크게 높아졌던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최근 많이 낮아졌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Ⅱ-6).

그림 Ⅱ-5. 회사채 신용스프레드[1)] 및 신용등급 간 스프레드



주: 1) 3년물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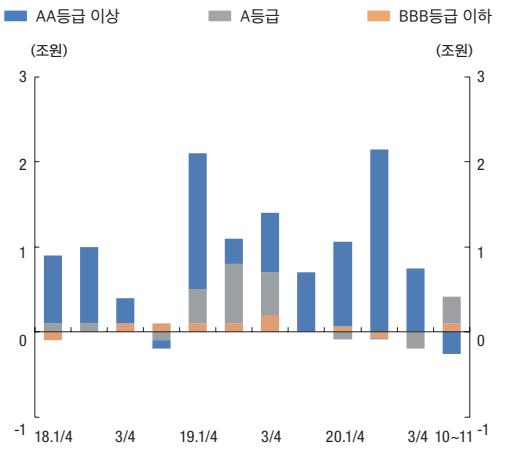
그림 Ⅱ-6. 회사채 신용스프레드[1)2)]



주: 1) 3년물 기준
2) 장기 중간값은 2001년 1월~2020년 11월 기간중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편 회사채 발행시장에서는 하반기 들어서도 우량물을 중심으로 순발행 기조를 보였다. 비우량물도 기업유동성지원기구의 매입 등으로 4/4분기 들어 순발행되었다(그림 Ⅱ-7).

그림 Ⅱ-7. 회사채[1)] 순발행[2)]



주: 1) 공모 기준, 금융회사 발행분 제외
2)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2. 주식시장

주가 상승세 지속

주가는 7월 이후 주요국의 적극적인 정책대응,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반면 8~10월중에는 미국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 예상보다 양호한 기업실적 등 상승요인과 코로나19 재확산 가속화,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 등 하락요인이 엇갈리며 2,250~2,450 내에서 등락하였다. 11월 들어서는 미국 정치 관련 불확실성 완화,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등으로 큰 폭 상승하여 역대 최고치[3]를 기록하였다(그림 Ⅱ-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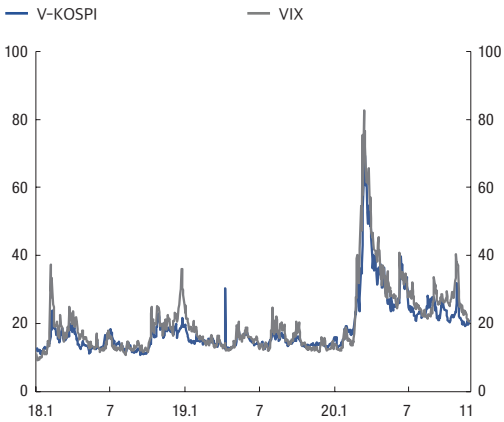
그림 Ⅱ-8. 코스피 및 글로벌 주가[1]



주: 1) 미국은 다우지수,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은 MSCI 기준
자료: KOSCOM, Bloomberg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6~10월중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 및 미국 정치 관련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단기간 상승 후 하락하는 모습을 반복하였다. 11월 들어서는 점차 안정화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Ⅱ-9).

그림 Ⅱ-9. 주가 변동성 지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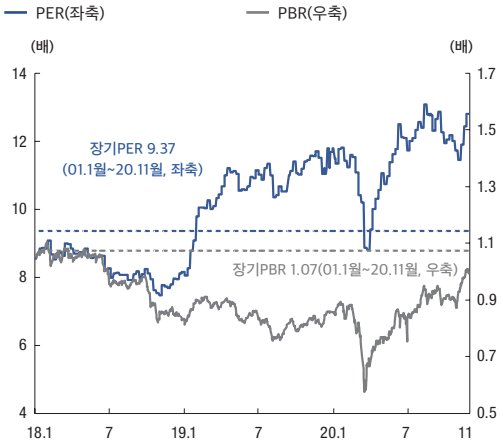
주: 1) KOSPI200 및 S&P500 지수의 옵션 가격으로부터 산출된 변동성지수
자료: KOSCOM, Bloomberg

PER 소폭 하락, PBR 상승

주가수익비율[4](PER)은 주가 상승에 따라 8월중순 13.09배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기업실적 개선 기대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하락하였다. 다만 11월 들어 주가 급등으로 재차 상승하여 11월말 12.79배로 장기평균(01년 이후, 9.37배)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다. 청산가치 대비 주가 수준인 주가순자산비율(PBR)의 경우 대체로 오름세를 지속하여 11월말 0.99배 수준까지 상승하였다(그림 Ⅱ-10).

3) KOSPI는 11월 27일 기준 2,633을 기록하여 코로나19 이전 최고치(2,598, 18년 1월 29일)를 경신하였다.
4) MSCI 기준 12개월 선행 PER을 활용하였으며 동 지표는 MSCI지수 편입기업들의 현재 시가총액 합계를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순이익(국내외 증권회사 전망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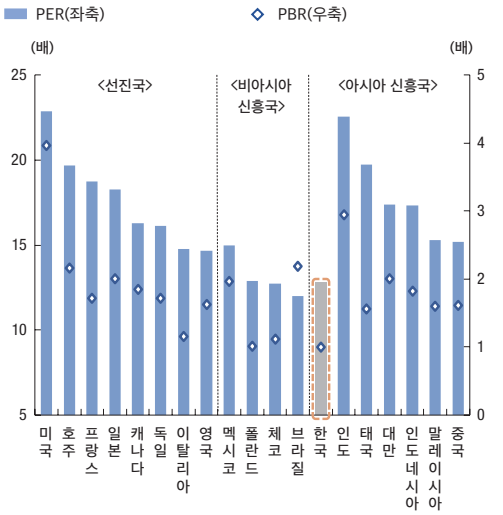
그림 Ⅱ-10. PER[1] 및 PBR[2]



주: 1) MSCI 기준(12개월 선행 PER)
2) 코스피 종목 기준
자료: Bloomberg, Thomson Reuters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국내 주식시장의 PER 및 PBR은 선진국뿐 아니라 주요 신흥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그림 Ⅱ-11).

그림 Ⅱ-11. 주요국의 PER[1)2)] 및 PBR[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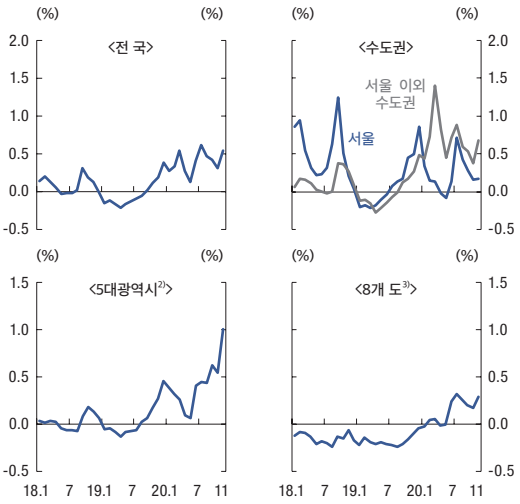
주: 1) 2020년 11월말 기준
2) MSCI 기준(12개월 선행 PER)
자료: Bloomberg, Thomson Reuters

3. 부동산시장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재차 확대

주택매매가격은 6·17, 7·10, 8·4 대책 등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8월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다가 11월중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는 주택공급 부족 우려,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가 지속된 데 주로 기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이외 수도권, 5대광역시의 경우 개발호재, 규제격차[5]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8개 도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그림 Ⅱ-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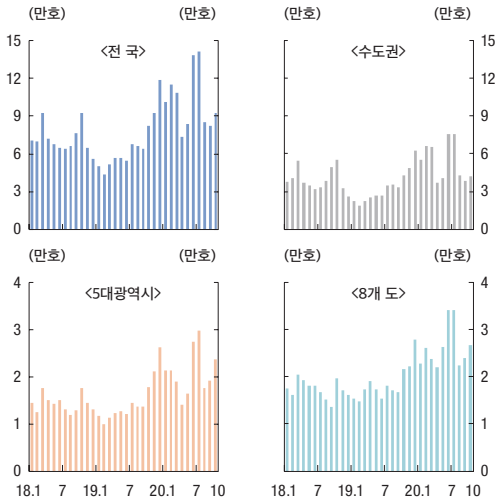
그림 Ⅱ-12. 주택매매가격 상승률[1]



주: 1) 전월대비
2)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및 울산
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및 제주
자료: 한국부동산원

주택매매거래량은 2020년 1~10월중 102.2만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2.0% 증가하였다. 6~7월중 가격상승 기대가 높아지면서 큰 폭 증가하였다가 8월 이후 규제 강화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6] 등으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을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하였다(그림 Ⅱ-13).

그림 Ⅱ-13. 주택매매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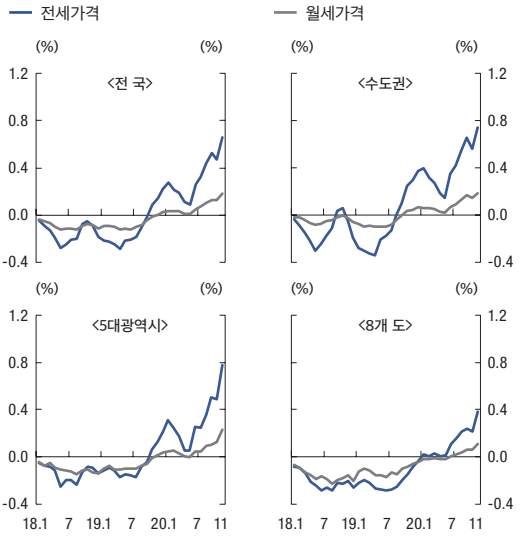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전월세가격 상승폭 확대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전월세가격은 입주물량 감소, 매매가격 상승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8월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의 영향[7]에 따른 유통물량 감소로 전월세 수급불균형[8] 심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다(그림 Ⅱ-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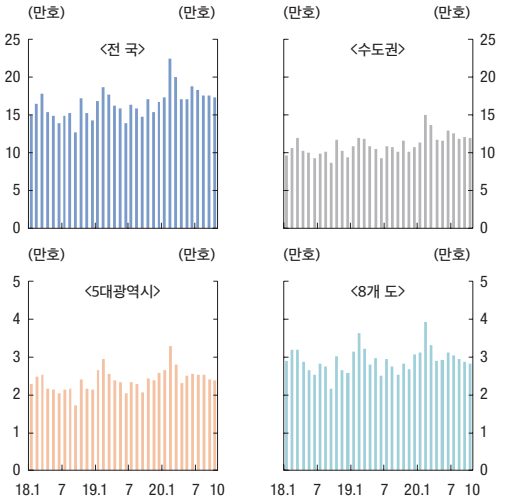
5) 금년 들어 정부의 규제조치가 적용되지 않거나 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6) 아파트 매수우위지수(KB부동산 발표)는 7·10 대책 발표 이후 하락세로 전환(6월 29일 92.0 → 7월 6일 94.7 → 7월 13일 82.6)되었다가 10월 중순 이후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높아지는 모습(10월 5일 67.5 → 10월 12일 74.0 → 11월 30일 99.8)이다.
7)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시행(7월 31일),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요건(2년) 신설 등으로 전월세시장 유통물량이 감소하였다.
8) 아파트 전세수급지수(KB부동산 발표)는 4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10월에는 통계작성(03년 7월 1일) 이후 최고점을 기록(4월 6일 152.6 → 10월 26일 192.8 → 11월 30일 186.6)하였다.

그림 Ⅱ-14. 주택전월세가격 상승률[1)]



주: 1) 전월대비
자료: 한국부동산원

그림 Ⅱ-15. 주택전월세거래량[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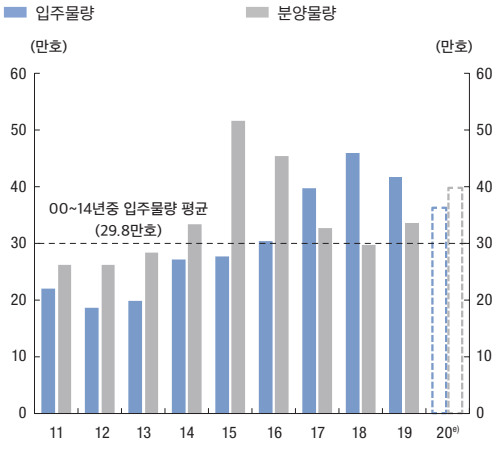
주: 1) 확정일자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전월세거래량[9)]은 2020년 1~10월중 183.3만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1% 증가하였다. 임차유형별로 보면 같은 기간중 전세 및 월세 거래량이 각각 109.4만호, 73.9만호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2.0%, 12.4% 늘어난 가운데 전세 비중은 59.7%로 지난해 같은 기간(59.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같은 기간중 수도권 거래량이 124.6만호로 전년동기대비 14.9% 증가한 가운데 5대광역시 및 8개 도 거래량은 각각 26.0만호, 31.0만호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8.2%, 5.6% 늘어났다(그림 Ⅱ-15).

2020년중 아파트 신규입주물량은 약 36.2만호로 전년(41.6만호)에 비해 줄어들면서 지난해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중 아파트 분양물량[10)]은 39.8만호로 지난해(33.6만호)보다 늘어날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Ⅱ-16). 한편 미분양주택물량은 2020년 10월말 기준 2.7만호(수도권 0.4만호, 지방 2.3만호)로 경남, 경북, 강원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년말 대비 44.1%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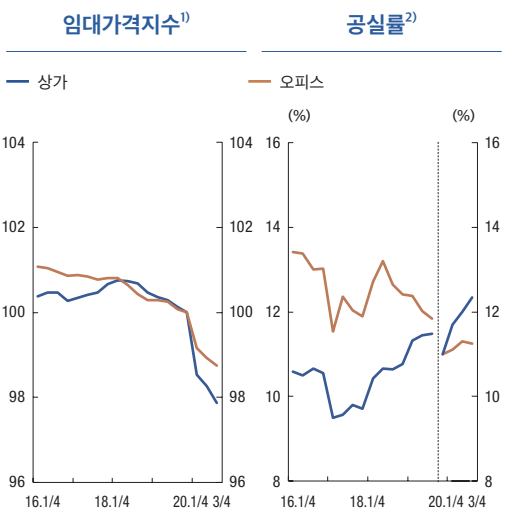
9)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계약 건을 대상으로 집계되어 전체 전월세거래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0) 2020년중 수도권(17.6만호 → 21.9만호) 및 비수도권(16.0만호 → 17.9만호) 모두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5월중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분양 지연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5%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그림 Ⅱ-16. 아파트 입주 및 분양 물량[1)]



주: 1) 2020년 12월 2일 기준(단, 20년은 월별계획물량 합산 기준)
자료: 부동산114

그림 Ⅱ-17.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지수 및 공실률



주: 1) 2019년 4/4분기=100. 상가는 중대형 기준
2) 2020년 1/4분기 표본개편으로 시계열 단절. 상가는 중대형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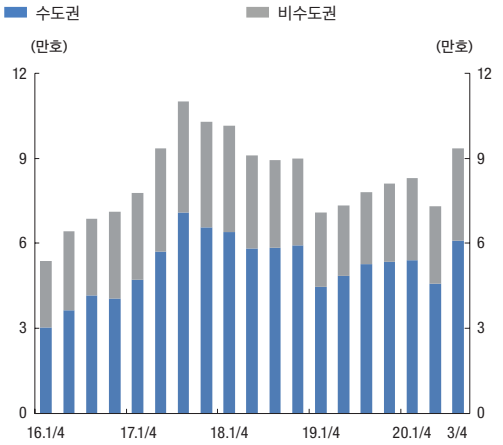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 하락세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건물 유형별 임대가격은 2020년 1/4~3/4분기중 상가 및 오피스가 각각 전년말 대비 2.1%, 1.3% 하락하였다. 한편 공실률[11)]의 경우 상가는 3/4분기 12.4%로 전분기(12.0%)보다 상승하였으나, 오피스(11.2%)는 전분기 수준(11.3%)을 유지하였다(그림 Ⅱ-17).

상업용부동산 거래량은 2/4분기중 일시 감소하였다가 3/4분기 늘어나면서[12)] 2020년 1/4~3/4분기중 24.9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2% 증가하였다(그림 Ⅱ-18).

11) 2020년 1/4분기 임대동향조사부터 표본확대 및 교체 등으로 2019년 4/4분기 이후의 시계열이 단절되었다.
12) 금년 3/4분기중 상업용부동산 거래량 증가는 자산가격 상승 기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Ⅱ-18. 상업용부동산[1] 거래량[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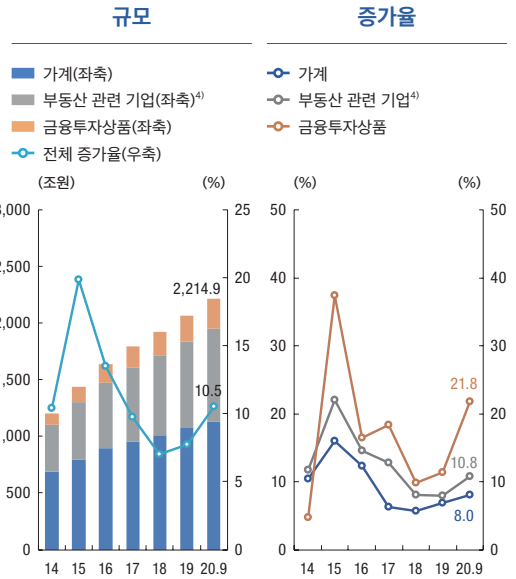


주: 1) 상업업무용(오피스텔 포함) 기준
2) 매매 목적 이외 분양, 증여, 교환 등도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증가

2020년 9월말 현재 부동산금융 익스포저[13]는 2,214.9조원으로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하였다. 형태별로 보면 가계여신이 1,133.7조원(전체 익스포저 대비 51.2%)으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관련 대출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8.0% 증가하였다. 부동산 관련 기업여신은 816.4조원(36.9%)으로 전년동기대비 10.8% 증가하였다. 한편 금융투자상품은 264.8조원(12.0%)으로 2019년 4/4분기부터 MBS 발행이 크게 늘어나면서[14] 전년동기대비 21.8%로 큰 폭 증가하였다(그림 Ⅱ-19).

그림 Ⅱ-19. 부동산금융 익스포저[1] 규모[2] 및 증가율[3]



주: 1)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의 가계 및 부동산 관련 기업에 대한 여신과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합계
2) 기말 기준
3) 전년동기대비
4) 부동산 경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동산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 및 건설업종 기업으로 정의
자료: 한국은행

13)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의 가계 및 부동산 관련 기업에 대한 여신과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합계로 정의하였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3>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현황」(39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14) 2019년 4/4분기 이후 MBS 발행액이 크게 증가(19년 3/4분기 5.3조원 → 4/4분기 12.5조원 → 20년 1/4분기 17.9조원 → 2/4분기 10.8조원 → 3/4분기 10.6조원)하였다. 이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에 따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양도분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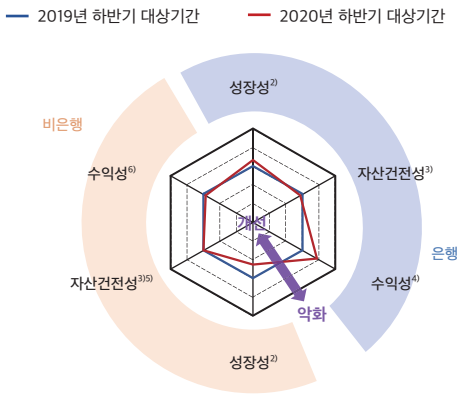
Ⅲ. 금융기관

일반은행[1]의 경영건전성을 보면, 수익성이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자산건전성은 정책당국의 금융지원 등에 힘입어 개선되는 등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을 이어갔다. 자산 성장세가 지속된 가운데 대부분의 업권에서 자산건전성은 개선되었으며, 수익성은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금융기관 간 자금 조달·운용을 통한 상호연계성은 높아졌다.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호거래가 늘어나면서 금융부문 총자산 대비 상호거래 비중이 상승하였으며, 금융업권 간 부실전염 리스크도 증가하였다(그림 Ⅲ-1).

그림 Ⅲ-1. 금융기관 경영건전성 상황 변화 지도[1]



주: 1) 2019년 3/4분기말 대비 2020년 3/4분기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2) 총자산 증가율
3) 고정이하여신비율
4) 총자산순이익률(ROA)
5) 증권회사 제외
6) 비은행 업권별 ROA를 총자산 규모에 따라 가중평균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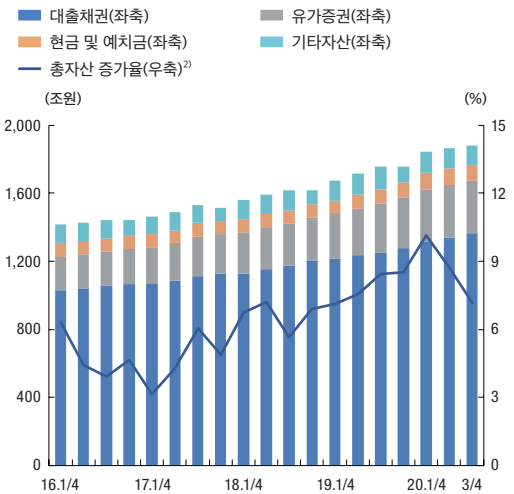
1. 은행

자산 증가세 둔화

일반은행의 총자산(은행계정 기준)은 2020년 3/4분기말 1,88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하였다. 대출채권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대출 외 자산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총자산 증가율은 전년동기(8.4%)보다 낮아졌다.

자산항목별로 살펴보면 대출채권은 전년동기대비 8.9% 늘어나, 지난해 3/4분기(6.8%)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기업대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가계대출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다.[2] 유가증권의 경우 지난해 비이자이익 증대 노력 등으로 크게 늘어났으나, 금년 3/4분기말 증가율은 8.3%로 전년동기(15.2%)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그림 Ⅲ-2).

그림 Ⅲ-2. 일반은행 총자산 규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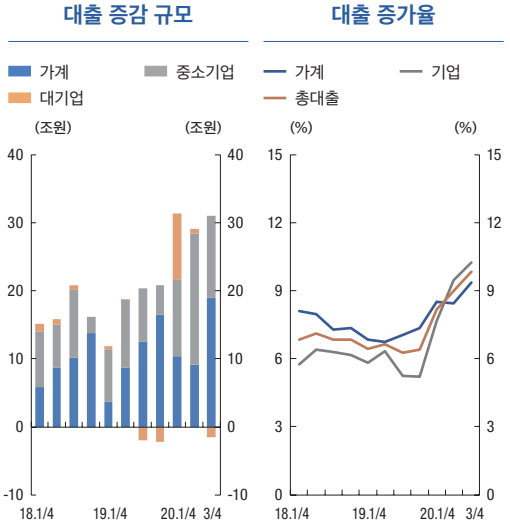


주: 1) 은행계정 기말 잔액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1) 금융안정보고서의 은행부문은 일반은행(시중·지방 은행)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영업모델이 상이한 특수은행(산업, 기업, 수출입, 농협 및 수협 은행)은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시중은행에 포함된다.
2) 가계 신용대출이 같은 기간중 19.2%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7.7%)을 크게 상회하였다.

차주별 대출채권(원화대출금 기준)을 보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2020년 1/4~3/4분기중 각각 38.6조원, 51.5조원 늘어나 모두 전년 같은 기간(25.0조원, 24.0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3/4분기말 총대출 증가율(9.8%)은 2008년 4/4분기(1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특히 기업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의 영향으로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3] 2020년 2/4분기부터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대기업대출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불확실성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 수요가 집중되면서 1/4분기에 큰 폭 증가하였으나 이후 증가폭이 축소되어 3/4분기에는 감소로 전환하였다(그림 Ⅲ-3).

그림 Ⅲ-3. 일반은행 대출[1] 증감[2] 규모 및 대출 증가율[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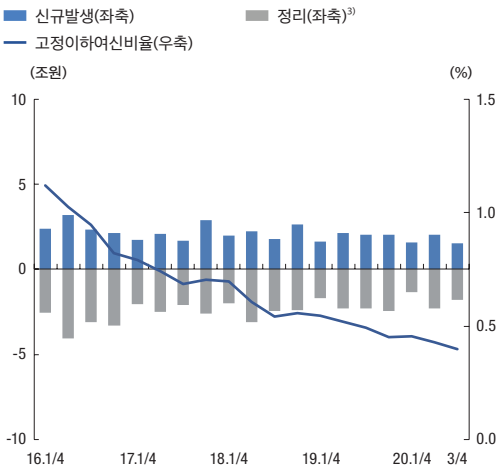


주: 1)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기준
2) 전기대비
3) 전년동기대비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자산건전성 양호

일반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0년 3/4분기말 0.40%로 코로나19 이후의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 조치에 힘입어 전년동기(0.49%)에 비해 하락하였다(그림 Ⅲ-4).

그림 Ⅲ-4. 부실채권 발생·정리 실적[1] 및 고정이하여신비율[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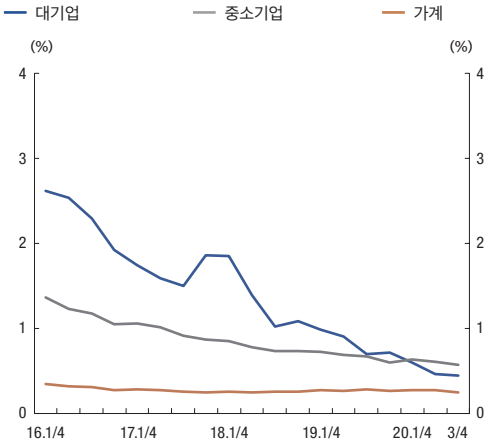


주: 1) 기간중 기준
2) 기말 기준
3) 회수, 대손상각, 매각, 건전성재분류, 채권재조정 등 포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차주별로 살펴보면 가계여신은 2020년 3/4분기말 0.25%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기업여신의 경우 대기업이 0.44%로 전년동기(0.69%)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하락세를 지속하였고, 중소기업은 0.10%포인트 하락하여 0.57%를 기록하였다(그림 Ⅲ-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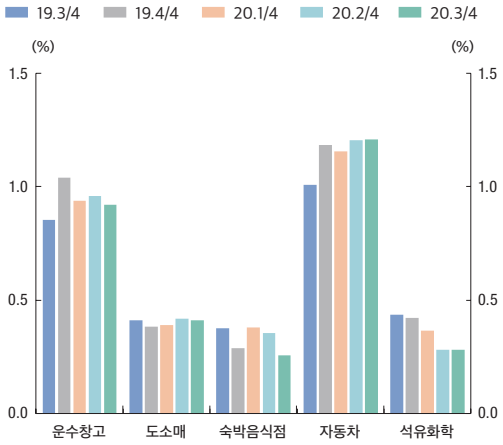
3) 금년 1/4~3/4분기중 중소기업대출 증가폭(42.5조원)은 2004년 이후 최대이며, 특히 2/4분기 증가폭(19.3조원)은 2003년 3/4분기 이후 최대이다.

그림 Ⅲ-5. 일반은행 차주별 고정이하여신비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그림 Ⅲ-6. 일반은행 주요 업종 고정이하여신비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업종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19년 3/4분기 0.44% → 20년 3/4분기 0.28%), 숙박음식업(0.38% → 0.26%) 및 도소매업(0.41% → 0.41%) 등 대부분 업종이 하락하거나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자동차(1.01% → 1.21%) 및 운수창고업(0.86% → 0.92%)은 소폭 상승하였다. 주요 업종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등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실적 회복이 지연되고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4]될 경우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그림 Ⅲ-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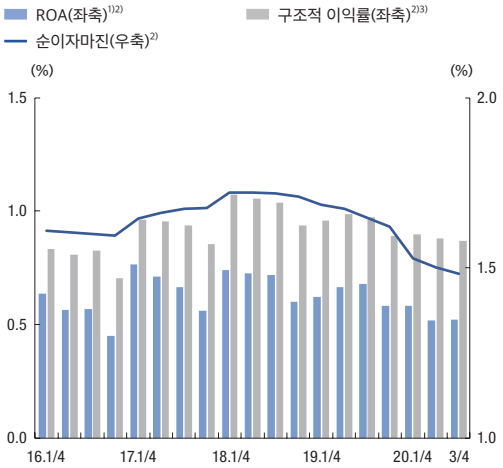
수익성 소폭 저하

일반은행의 수익성은 전년동기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2020년 1/4~3/4분기중 0.52%(연율환산 기준)로 전년동기대비 0.16%포인트 하락하여, 2018년 이후의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은행의 지속적 이익 창출능력을 나타내는 구조적 이익률도 2020년 1/4~3/4분기중 0.87%(연율환산 기준)로 전년동기대비 0.10%포인트 하락하였다(그림 Ⅲ-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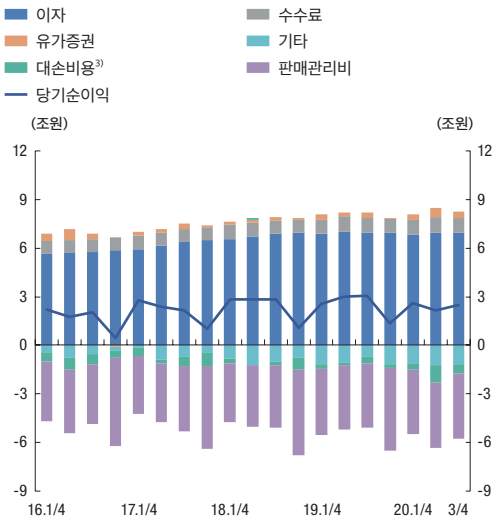
4)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된 가운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행업감독규정」 <별표 3>)에 따르면 차주가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대출채권이 '고정'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동 조치가 종료된 후 시차를 두고 취약 가계 및 기업의 부실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7. 일반은행 수익성



주: 1) 대손준비금 전입 전 금액 기준
2)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3) (이자이익 + 수수료이익 + 신탁이익 - 운영경비)/총자산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그림 Ⅲ-8. 일반은행 당기순이익 증감요인1)2)



주: 1) 대손준비금 전입 전 금액 기준 2) 기간중 기준
3) 대손상각비, 충당금 순전입액 및 대출채권 매매손익 포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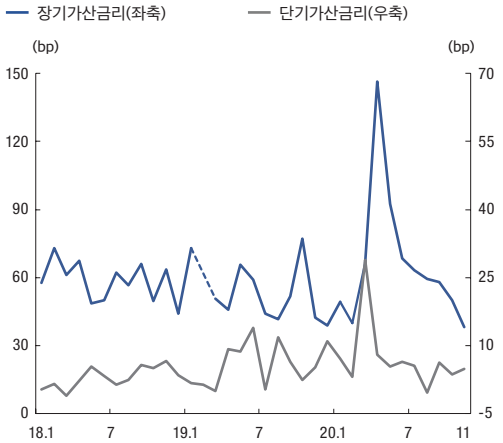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20년 1/4~3/4분기중 7.2조원으로 전년동기(8.6조원) 대비 1.4조원 감소하였다. 순이익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이자이익은 저금리에 따른 순이자마진 하락[5]에도 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0.1조원)에 그쳤다. 다만 향후 대출 부실에 대비한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6]로 대손비용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조원 늘어나면서 당기순이익 감소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에도 은행의 수익성은 경기회복 지연, 경쟁심화 등 영업환경[7] 변화와 대손비용 증감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8](그림 Ⅲ-8).

대외 외화조달 여건 개선

일반은행의 대외 외화조달 여건은 금년초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악화되었으나 이후 안정화되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단기 외화차입 가산금리는 국제금융시장 내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되고 달러화 유동성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하락하였다. 장기 외화차입 가산금리도 신흥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심리 개선 및 9월중 외평채[9]의 양호한 발행성과 등에 힘입어 하락세를 보였다(그림 Ⅲ-9).

5)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3월 1.25% → 0.75%, 5월 0.75% → 0.50%) 등으로 일반은행의 순이자마진은 2020년 3/4분기중 1.48%까지 하락하였다. 한편 원화 이자수익자산(20년 3/4분기말 평잔)은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하였다.
6) 2020년 9월말 일반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잔액이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하면서 지난해 9월말(-5.7%)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7) 디지털금융 진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3> 「비대면 금융거래 현황 및 평가」(52쪽)를 참조하기 바란다.
8) 2020년 1/4~3/4분기중 은행 당기순이익의 감소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여력이 있을 때 미리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
9) 2020년 9월 10일 14.5억달러 규모로 발행된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금리 및 가산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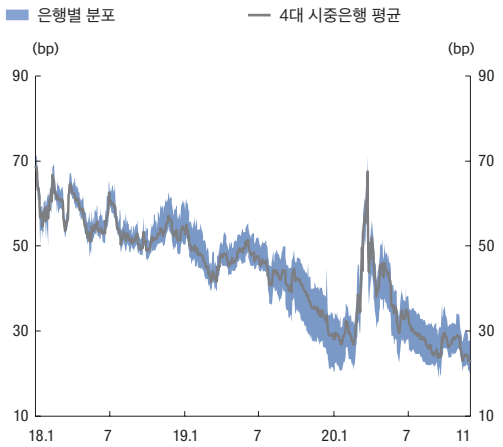
그림 Ⅲ-9. 대외 외화차입 장·단기 가산금리[1)2)]



주: 1) LIBOR 기준 가산금리(국민, 신한, 우리 및 하나 은행의 미 달러화 차입금액 가중평균)
2) 국내 금융기관 간 차입 및 본지점 차입, O/N은 집계대상에서 제외
3) 차입실적 부재로 데이터가 단절된 시점(19년 2월 장기차입 가산금리)은 점선으로 표시
자료: 한국은행

일반은행의 CDS 프리미엄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급등하였다가 이후 빠르게 하락하면서 11월에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그림 Ⅲ-10).

그림 Ⅲ-10. 일반은행[1)] CDS 프리미엄[2)]



주: 1) 국민, 신한, 우리 및 하나 은행 기준
2) 5년물 기준
자료: Markit

참고 3.

비대면 금융거래 현황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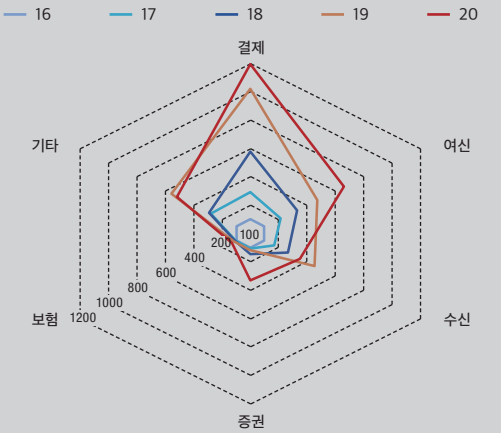
2010년대 중반 이후 디지털기술 발전과 함께 핀테크 기업 수가 크게 늘어났고 이들 기업의 금융부문 진출도 꾸준히 확대되었다. 한편 금융기관들도 영업점포를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늘려 왔다.[1] 특히 금년 들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 등으로 모바일 결제 등 비대면 거래가 보다 활성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의 디지털금융 지원정책 추진[2] 등으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최근 금융부문에서의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거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영향과 관련 리스크를 점검해 보았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현황

2016년 이후 연도별 비대면 금융거래[3] 규모의 증가 추이를 결제(송금 포함), 여신, 수신, 증권(자산운용 포함), 보험, 기타 등 6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4년간 6개 부문의 거래 규모는 평균 5배 이상 늘어났으며, 특히 결제 부문의 성장세(16년 대비 12.0배)가 가장 두드러졌다. 금년 들어서는 증권(177.4%), 여신(39.4%), 결제(16.9%) 등의 부문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비대면 금융거래의 부문별[1] 증가 추이[2]



주: 1) 2016년 연간 비대면 거래금액을 100으로 지수화(각 부문별로 2개 이상의 가용한 통계를 활용)
2) 2020년은 1~9월중 거래규모 등을 활용하여 연간규모를 추정
자료: 한국은행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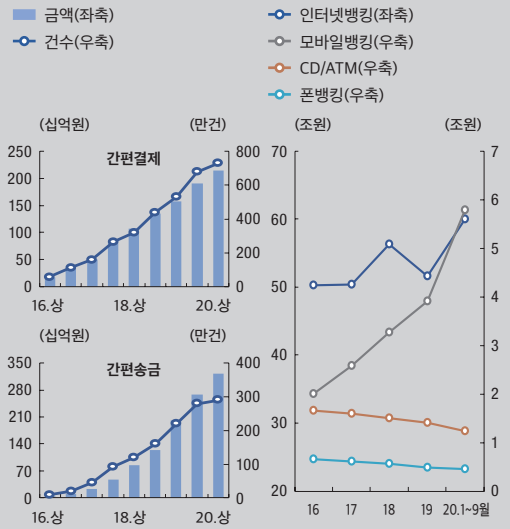
(결 제)

결제는 비대면 금융거래 중 가장 활성화된 부문으로서 2016년 이후 금융기관 및 핀테크(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거래를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온라인쇼핑[4] 등 전자상거래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카드사의 간편결제 비중이 금년 들어 빠르게 상승[5]하였다. 핀테크 기업도 카드사와의 업무제휴 또는 자체 충전금 활용 등을 통해 간편결제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 한편 은행의 비대면 채널별로 송

1) 일반은행 지점 수는 2013년말 5,046개에서 2020년 9월말 3,930개로 감소한 반면 핀테크 기업 수는 2013년말 94개에서 2019년말 345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2) 2020년 7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그린 뉴딜(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유도)과 함께 디지털 뉴딜(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유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3) 본고에서의 비대면 금융거래는 폰뱅킹 및 CD/ATM 이용뿐 아니라 인터넷·모바일 등의 디지털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한다. 다만 통계자료 제약 등으로 모든 비대면 금융거래를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용통계(지급결제 관련 통계,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등)를 활용하여 2016년 이후 비대면 거래규모 추이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4) 2020년 1~9월중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월평균 기준, 통계청)은 26.6%로 코로나19 이전(18년중 18.8%, 19년중 21.4%)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 카드사의 전체 결제금액 대비 간편결제 비중은 2020년 1월중 14.0%에서 9월중 16.8%로 상승하였다.

금·이체 등 금융거래 규모 추이를 비교해보면, 폰뱅킹 및 CD/ATM 이용 거래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금년 들어 인터넷뱅킹은 증가세로 전환되고 모바일뱅킹은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간편결제·간편송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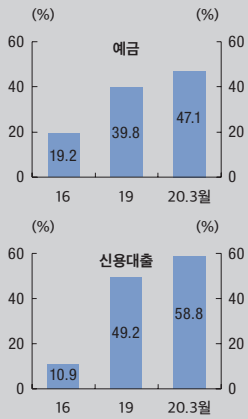
은행의 비대면 채널별 거래규모[2]

주: 1) 기간중 일평균 이용실적
2) 기간중 일평균
자료: 한국은행,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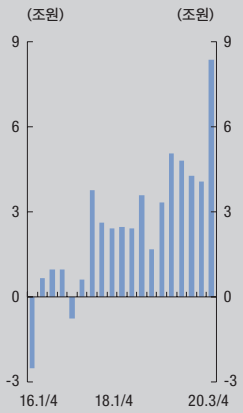
(여신·수신)

금융기관의 비대면 예금·대출 거래는 IT에 기반한 온라인·무점포 영업구조를 가진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2017년 이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은행권 가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온라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기업의 경우 비대면 채널 대출잔액(20년 9월말 4.6조원, 일반은행 기준)이 가계대출(56.0조원)에 비해 크게 작지만 최근 비대면 대출상품이 다수 출시되고 있어 향후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비대면 대출비중[6]이 지난해부터 크게 높아진[7]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거래비중[1]



은행의 비대면 채널[2] 기반 가계대출 증가규모[3]



주: 1) 기간중, 5개 시중은행 기준
2) 인터넷, 모바일 등
3) 기간중
자료: 금융위원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증권·보험)

증권 부문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및 증권회사의 비용 절감 차원에서 객장거래[8]의 비대면화가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금년

6) **저축은행의 비대면 예금 및 대출 취급 현황**

(조원, %)

	16년말	18년말	20.3월말		16년말	18년말	20.3월말
예금 잔액 (비중)	6.9 (15.5)	14.0 (23.4)	14.8 (22.1)	대출 잔액 (비중)	6.1 (14.1)	8.6 (14.7)	12.3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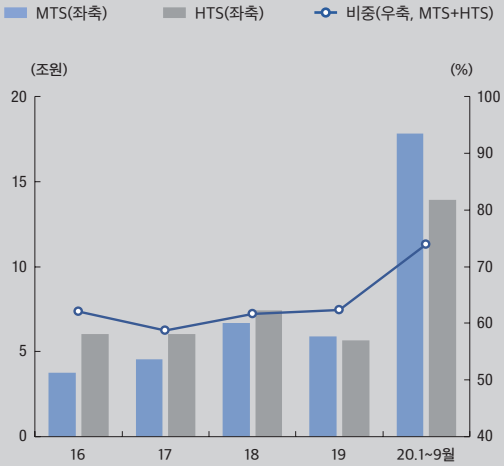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7) 또한 비대면 속성을 지닌 카드론도 꾸준한 증가세(16년말 23.7조원 → 18년말 26.7조원 → 20년 9월말 30.7조원)를 보여 왔다. 반면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개별 단위조합이 많아 영업점 방문을 통한 금융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다, 여신 대부분이 비대면 영업에 유리한 신용대출보다는 부동산담보대출로 구성되어 있고 고객층도 디지털 접근·활용도가 낮은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비대면 예금·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8) 증권회사 지점 수는 2016년말 1,275개에서 2020년 9월말 현재 986개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객장에서 수행되는 주식매매 거래비중도 계속 하락(16년중 27.7% → 18년중 24.1% → 20년 1~9월중 13.4%)하고 있다.

에는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창구거래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고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MTS(Mobile Trading System) 및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한 주식매매거래가 급증하였다. 자산운용 부문의 경우에도 온라인 전용펀드 판매규모가 최근 크게 확대[9]되는 등 비대면 거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비대면 채널별[1] 주식매매 거래규모[2]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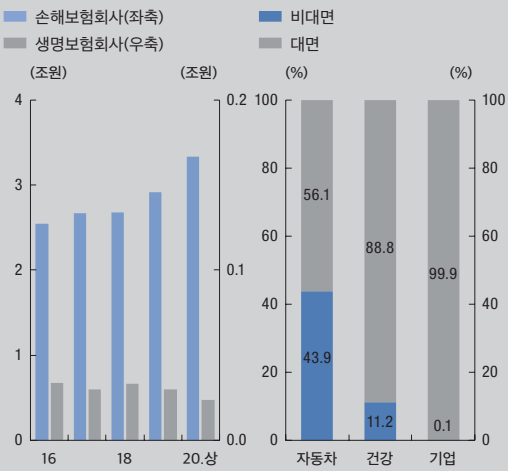


주: 1) MTS 및 HTS 기준(영업점 단말기 등은 제외)
2) 기간중 일평균
자료: 한국거래소

전통적으로 대면 판매방식 비중이 높았던 보험 부문의 경우 지난해부터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비대면 방식을 통한 보험가입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비대면 가입비중(20년 1~9월중 43.9%)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손해보험에 비해 상품구조 및 약관이 복잡한 생명보험은 소비자 보호 규제 정책 강화, 보험상품의 특성(판매 시 특약·보장내역 설명 필요) 등으로 비대면 채널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보험회사별 비대면 채널[1] 가입규모[2)3)]

손해보험회사의 상품별 비대면 비중[4)5)]



주: 1) 텔레마케팅, 온라인마케팅 등
2) 생보사는 초회보험료, 손보사는 원수보험료 기준
3) 기간중 분기평균 4) 원수보험료 기준 5) 2020년 1~9월중
자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기 타)

P2P 금융, 크라우드펀딩 등은 지난해까지 핀테크 기업의 금융부문 진출 확대와 함께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금년 들어서는 연체율이 급등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관련 사모펀드 환매 연기 등으로 자금 유입규모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P2P 금융·크라우드펀딩

	2017	2018	2019	2020[1)]
P2P 금융[2)](조원)	0.3	0.3	0.7	0.6
크라우드펀딩[3)](백억원)	0.7	0.8	0.9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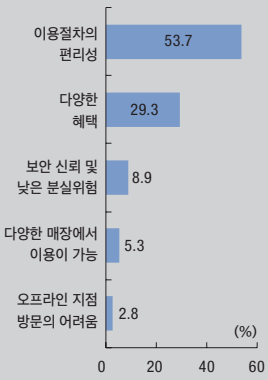
주: 1) 1/4~3/4분기중
2) 기간중 분기평균 취급액
3) 기간중 분기평균 증감
자료: 한국P2P금융협회, 크라우드넷

9) 2016년중 펀드 설정액이 0.1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2019년중에는 2.0조원, 2020년 1~9월중에는 3.2조원이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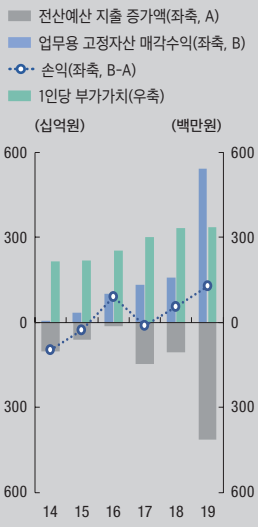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에 따른 잠재리스크

비대면 금융거래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비대면 거래가 늘어날수록 소비자에게 금융서비스의 편리성과 다양성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비용 절감,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특히 은행의 경우 영업점 등 업무용 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수익이 비대면 서비스 등과 관련한 전산예산 비용을 상회하고 있다.

모바일 금융거래 선호도[1]



업무용 고정자산 매각수익 및 전산예산[2] 비용



주: 1) 일반은행 고객 대상 모바일 뱅킹서비스 이용 이유 서베이 결과(20년 3월)
2) 전산 관련 자본예산, 기기 및 통신회선 이용료 등
자료: 한국은행,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하지만 비대면 금융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기존 금융산업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면서 다음과 같이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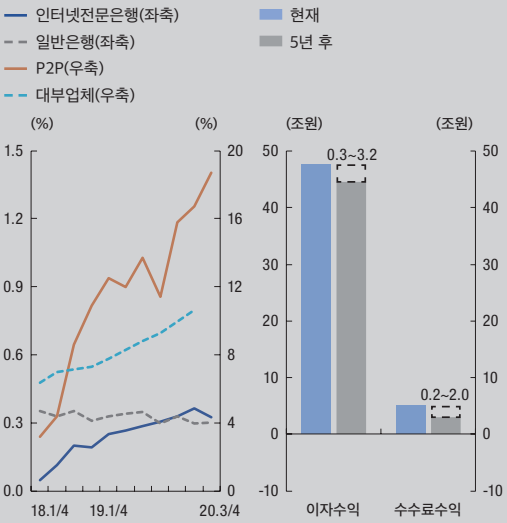
우선 비대면 거래는 높은 IT 의존도로 인해 사이버·운영 리스크[10], 개인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등에 취약할 수 있다.

둘째, 비대면 거래는 상황에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가계부실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 비대면 방식으로 취급되는 P2P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도 연체율이 일반은행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무담보·신용 대출의 경우 다중·취약차주 등의 대출수요가 몰리는 경향이 있어 경기부진 시 부실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셋째, 핀테크·빅테크 기업 등이 직접 제공하는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금융시스템 내 비중이 커지고 있어 이들 기업과의 경쟁 심화는 금융기관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11]을 줄 수 있다. 금융기관들의 송금, 자산관리, 외환업무 등 수수료 기반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출 등 핵심업무에서도 영업기반이 잠식되어 수익이 감소[12]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위험추구 강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10) 자세한 내용은 <참고 7>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사이버리스크 대응현황 및 시사점」(96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11) IMF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결과보고서(20년 4월 발표)를 통해 향후 핀테크 발전으로 금융산업 내 경쟁이 심화될수록 금융기관의 이자수익이 감소하고 자본조달비용이 증가하여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자본적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12) 경쟁 강도에 따라 핀테크 기업 영업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은행 영업규모가 감소하여 은행의 수익이 감소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경쟁관계가 10~100%일 때 5년 후 은행의 수익(이자+수수료)이 최소 0.5조원, 최대 5.2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한편 핀테크 기업의 이자 부문 성장률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및 P2P와 일반은행 간 대출 증가율 차이로, 수수료 부문은 최근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서비스(건수)와 일반은행의 전자금융거래(건수) 증가율 간 차이로 계산하였다.

P2P·인터넷전문은행 대출 연체율[1)]



경쟁 심화시 은행의 수익 추정[2)]

주: 1) 기말 기준
2) 싱가포르통화청(MAS) 금융안정보고서(17년) 등을 참고하여 현재(19년) 대비 5년 후 일반은행의 수익을 추정
자료: 은행 업무보고서, 미드레이트,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시산

넷째, 금융시스템 내 상호연계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위기 발생시 관련 기관의 유동성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에도 유념해야 한다. 핀테크 기업은 예금자 보호 및 부실자산 정리 등 금융안전망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외부충격 발생시 대규모 고객자금 유출 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기관으로 유동성리스크가 전염될 우려[13)]가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디지털금융 진전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대면 거래가 갖는 효익을 극대화하고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산업의 변화, 핀테크 관련 국제논의 동향 및 주요국 대응사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위험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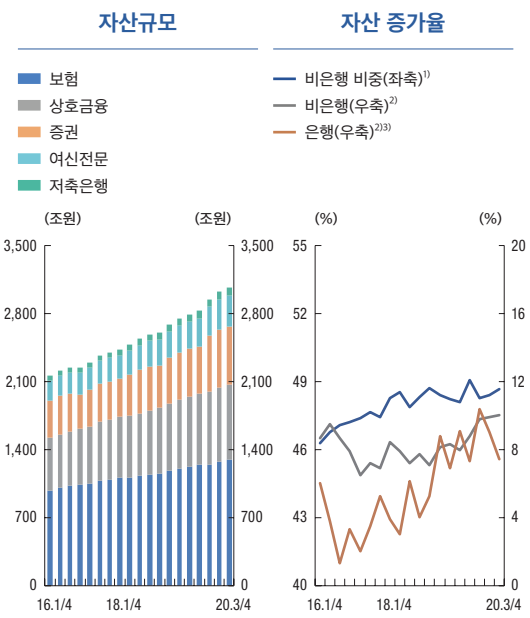
13) FSB는 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내 비중이 큰 상황에서 외부충격에 따른 지급불능사태 발생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Bigtech in finance; Market developments and potential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SB, 19년 12월).

2. 비은행금융기관

자산 성장세 지속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은 2020년 3/4분기말 3,06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0% 늘어나며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금융권[10] 전체 총자산(6,304조원)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4분기말 48.7%로 전년동기(48.1%)보다 0.6%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Ⅲ-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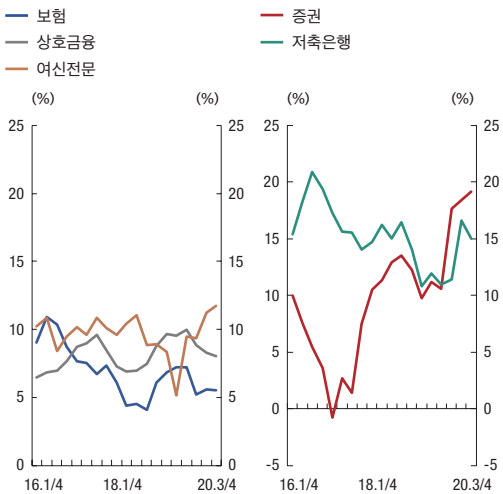
그림 Ⅲ-11.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 규모



주: 1) (비은행금융기관 자산) / (은행+비은행금융기관 자산)
2) 전년동기대비
3) 일반은행 외에 특수은행 및 외은지점 포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업권별로 보면 2020년 3/4분기말 기준으로 증권회사가 전년동기대비 19.2% 증가하여 자산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금년 3월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진콜로 인해 외화유동성 부족을 겪은 증권회사는 외화예치금·증거금과 주식투자 관련 투자자예치금 등 현금성 자산이 크게 증가하였다.[11]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적 동기의 여유자금 운용, 사업다각화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1.7% 증가하였다.[12] 저축은행은 가계 및 기업 대출 모두 증가세가 확대[13]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5.0% 늘어났다. 상호금융조합도 기업대출을 중심으로[14]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하였다. 한편 보험회사는 전년동기대비 5.6% 증가하는 데 그쳤다(그림 Ⅲ-12).

그림 Ⅲ-12.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 증가율[1)2)]



주: 1) 전년동기대비
2) 증권회사는 미수금 제외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0)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을 포괄하며, 은행은 일반은행 외에 특수은행 및 외은지점을 포함한다.
11)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식시장으로 대기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투자자예치금이 2020년 3/4분기말 전년동기대비 97.9% 증가하였으며, 주요국 증시 급락에 따른 ELS 관련 마진콜 발생으로 해외파생상품 관련 예치금·증거금이 47.0% 확대되었다.
12) 증권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코로나19 이후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는 등 자금조달운용에 변화가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참고 5> 「코로나19 이후 증권회사·여전사 자금조달운용 현황 및 시사점」(65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13) 저축은행은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대출이, 기업대출의 경우 금융·보험업 및 PF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관련 대출 동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4>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현황 및 시사점」(60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14) 상호금융조합의 기업대출 규모는 2020년 3/4분기말 19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5%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은 319조원으로 같은 기간중 1.7%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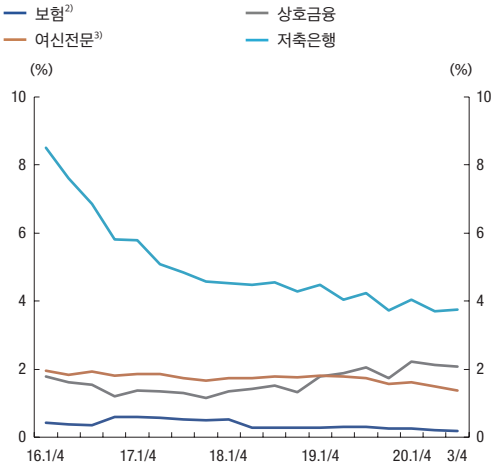
자산건전성 양호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대부분의 업권에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하락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상호금융조합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모두 상승하면서 자산건전성이 저하되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0년 3/4분기말 각각 3.75%, 4.65%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49%포인트 및 0.45%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각각 1.38%, 1.49%로 각각 0.35%포인트 및 0.19%포인트 하락하였다. 보험회사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도 각각 0.20%, 0.15%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11%포인트 및 0.04%포인트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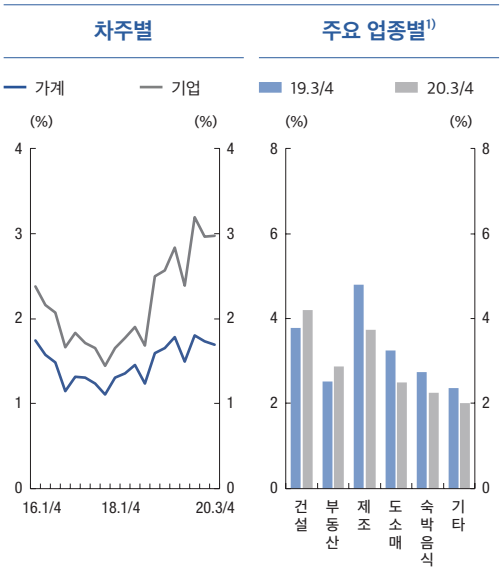
반면 상호금융조합[15]의 2020년 3/4분기말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2.09%, 2.37%로 기업대출을 중심[16]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03%포인트, 0.16%포인트 상승하였다. 주요 업종별로는 건설업·부동산업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의 연체율이 높아졌다[17](그림 Ⅲ-13, 그림 Ⅲ-14, 그림 Ⅲ-15).

그림 Ⅲ-13. 비은행금융기관 연체율[1]



주: 1)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2) 보험약관대출 제외
3) 카드(판매신용 제외)·할부·리스자산 포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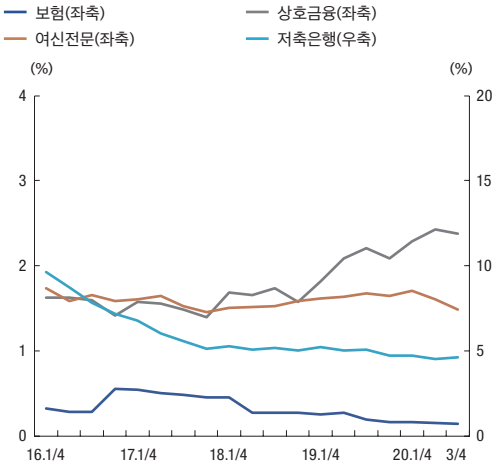
그림 Ⅲ-14. 상호금융 대출 연체율



주: 1) 기업대출 기준, 새마을금고 제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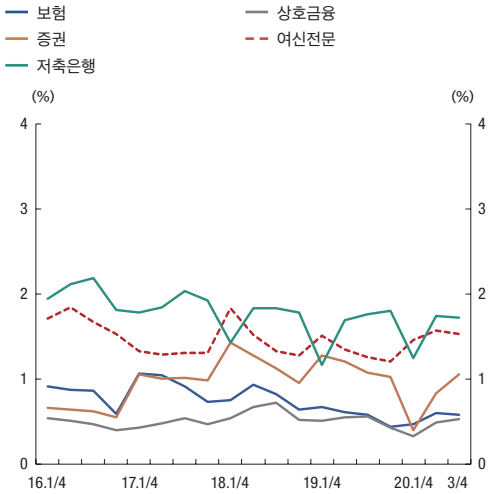
15) 2020년 3/4분기말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연체율은 1.60%, 신협은 3.33%, 새마을금고는 2.52%이다.
16) 2020년 3/4분기말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년동기대비 0.16%포인트(1.78% → 1.62%) 하락하였으나 기업대출은 0.14%포인트(2.83% → 2.97%) 상승하였다. 최근의 기업대출 건전성 저하 배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안정 상황」(20년 9월)의 <참고 5> 「상호금융 기업대출 건전성 현황 및 평가」(31쪽)를 참조하기 바란다.
17)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제외) 기업대출의 주요 업종별 연체율은 건설업이 0.41%포인트(3.78% → 4.19%), 부동산업이 0.34%포인트(2.52% → 2.86%) 상승하였고, 제조업이 1.06%포인트(4.80% → 3.74%), 도소매업은 0.77%포인트(3.25% → 2.48%), 숙박음식업은 0.47%포인트(2.73% → 2.26%) 하락하였다.

그림 Ⅲ-15. 비은행금융기관 고정이하여신비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Ⅲ-16.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순이익률(ROA)[1)]



주: 1)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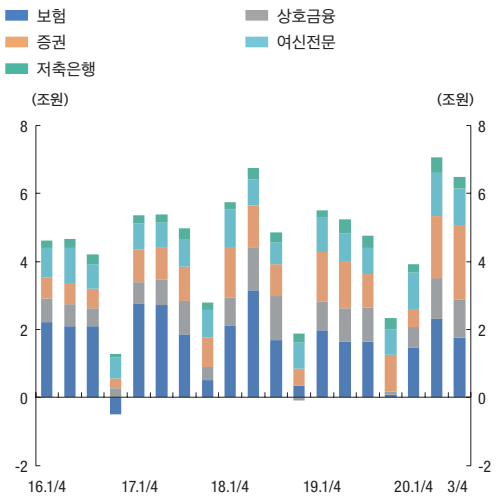
수익성 유지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익성은 업권별로 다소 상이하나 대체로 전년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보험회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2020년 1/4~3/4분기중 0.59%, 증권회사의 총자산순이익률은 1.06%[18)]로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순이익률은 각각 1.72%, 0.53%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05%포인트, 0.03%포인트 하락하였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순이익률은 1.53%로 주로 카드사업 관련 비용 절감[19)], 연체율 하락 등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0.27%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Ⅲ-16, 그림 Ⅲ-17).

그림 Ⅲ-17 . 비은행금융기관 당기순이익[1)]



주: 1) 분기중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8) 글로벌 주가지수 급락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관련 손실이 크게 증가한 1/4분기 이후 주가 반등에 따른 유가증권 및 파생 관련 이익과 주식거래 활성화에 따른 수수료이익이 확대되면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으나, 현금 및 예치금 등 수익률이 낮은 자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총자산순이익률 상승은 제한적이었다.

19)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여행 등 소비활동 위축 등으로 카드수익과 비용이 모두 감소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마케팅 및 카드모집비용 감소 등으로 카드비용(20년 1/4~3/4분기중 전년동기대비 -6.1%)이 카드수익(-0.2%)보다 더 크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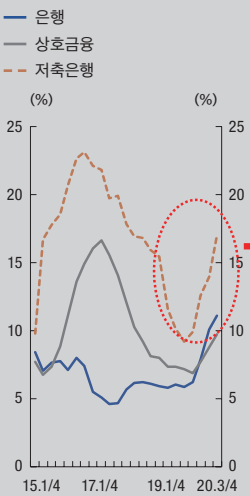
참고 4.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현황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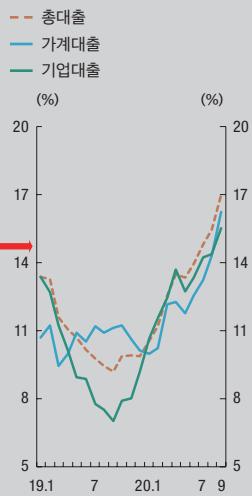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은 업계 구조조정[1]이 마무리된 2015년 이후 여타 금융업권보다 높은 대출 증가율(15~19년중 연평균 16.7%, 은행 6.2%, 상호금융 10.3%)을 보였다. 2020년 9월말 저축은행 대출잔액은 73.2조원으로 구조조정 이전의 최대 수준(10년 5월말 65.5조원)을 10년만에 상회하였다. 저축은행 대출의 빠른 증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2]를 바탕으로 한 견조한 수신 증가에 기반한다. 저축은행 수신은 2015~19년중 연평균 15.3% 증가하여 여타 금융업권(은행 6.3%, 상호금융 8.3%)보다 빠르게 늘어났다.

금년 들어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금융권의 대출 증가세가 확대(19년중 6.7% → 20년 9월말 10.1%)된 가운데 특히 저축은행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9.9% → 17.0%). 차주별로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이하에서는 저축은행의 최근 대출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금융업권별 대출 증가율[1]



저축은행의 가계·기업 대출 증가율[1]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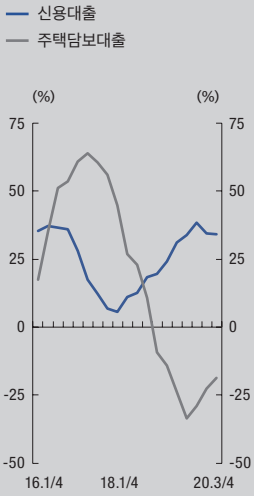
가계 : 중금리 신용대출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2020년 9월말 29.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은행 9.4%, 상호금융 -1.7%)하였으며, 특히 신용대출(18.6조원)이 34.1% 증가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였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위축[3]된 가운데 금융당국의 중금리 대출[4] 확대 방침[5]에 따라 저축은행이 관련 대출 영업을 강화[6]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수년간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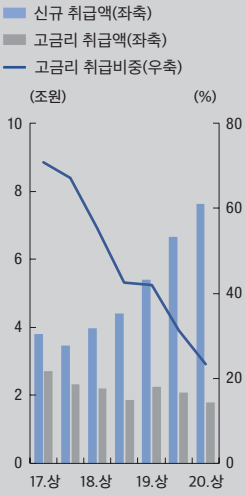
1) 저축은행 수는 PF대출 대규모 부실 등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2010년말 105개에서 2015년 1월말 79개까지 감소한 후 최근까지 동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2015년 1월~2020년 9월중 저축은행 평균 수신금리(1년 정기예금)는 2.28%로 은행(1.70%) 및 상호금융(1.85%)에 비해 각각 58bp, 43bp 높은 수준이다.
3) 저축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2019년중 -33.6%, 2020년 9월말 -18.7%(전년동기대비)로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4) 금융당국은 금융업권별로 중금리 대출의 인정 기준을 달리 정하였는데, 저축은행의 경우 가중평균금리 16% 이하(최고금리 19.5% 미만), 4등급 이하 차주에 대출 70% 이상 공급 등을 충족 시 중금리 대출로 간주한다.
5) 관련 규제상 유인책으로 중금리 대출의 가계대출 총량규제 예외 인정(18년 10월), 고금리 대출(금리 20% 이상)에 대해 충당금 50% 추가 적립(17년 6월),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 산정 시 중금리 대출의 대출 가중치 150%로 확대(16년 9월) 등이 있다.
6)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중금리 신용대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외부 머신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업체, 개인신용평가 전문회사 등과 업무 제휴하여 기존 신용평가시스템을 보완하였다.

르게 하락[7]하면서 신규 신용대출 중에서 금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다(17년 상반기중 70.8% → 20년 상반기중 23.3%).

담보별 가계대출 증가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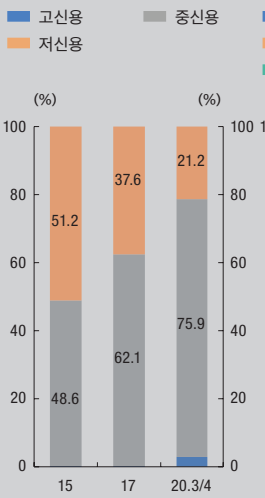
고금리 가계 신용대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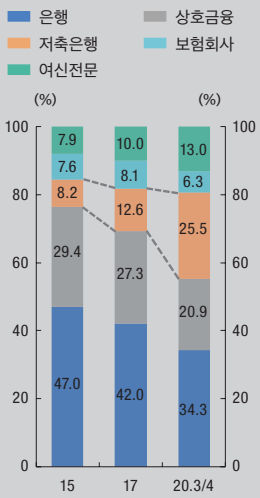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2) 반기중 신용대출 신규취급액 중에서 대출금리가 20% 이상인 대출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중신용자 비중이 상승하였으며(15년말 48.6% → 20년 9월말 75.9%), 전체 중신용자 신용대출시장에서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점유율도 같은 기간중 3배 가량 크게 확대되었다(8.2% → 25.5%).

신용등급별 가계 신용대출[1] 비중



업권별 중신용자 신용대출[1]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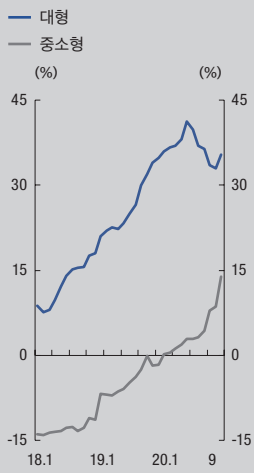


주: 1)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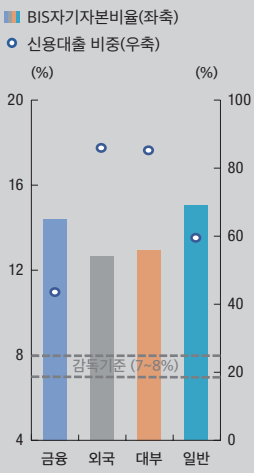
저축은행 규모별로는 대형 저축은행(자산 1조원 이상)이 가계 신용대출의 94.9%를 차지하며, 특히 대부계 및 외국계 대형 저축은행이 전체 신용대출 증가세를 견인[8]하였다. 이들 대부·외국계 저축은행은 신용대출 비중(85.6%)이 크게 높고 BIS자기자본비율은 낮아[9] 손실흡수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 2020년 9월중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16.8%로 최근 5년간 8.2%포인트 하락하였으며 같은 기간중 은행, 상호금융, 카드사는 각각 1.5%포인트, 1.1%포인트, 1.6%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8) 전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에서 대형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9월말 86.2%이다. 2016년 1월~2020년 9월중 대부계 및 외국계 대형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은 8.9조원 증가하여 같은 기간중 신용대출 증가액(12.1조원)의 73.2%를 차지한다.
9) 대부·외국계 대형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2020년 9월말 12.8%로 여타 대형 저축은행(14.6%)이나 업계 평균(14.6%)에 비해 1.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자산규모별 가계 신용대출 증가율[1]



소유구조별 가계대출의 신용대출 비중 및 BIS비율[2]



주: 1) 전년동기대비, 대형 저축은행은 2020년 9월말 자산규모 1조원 이상
2) 2020년 9월말 기준. 일반계는 최대주주가 개인 및 비금융법인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편 2020년 9월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3.50%로 전년동기대비 0.43%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신용대출은 3.64%로 같은 기간중 0.65%포인트 하락하였다.

저축은행의 담보별 가계대출 연체율[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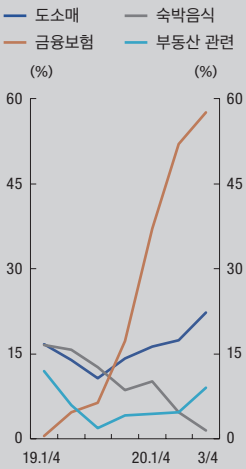
	2018년	2019년		2020년		
		3/4	4/4	1/4	2/4	3/4
가계대출 전체	4.65	3.92	3.58	3.83	3.41	3.50
신용대출	6.27	4.29	3.79	4.08	3.42	3.64
주택담보대출	1.76	2.92	3.04	3.25	2.86	2.64

주: 1) 기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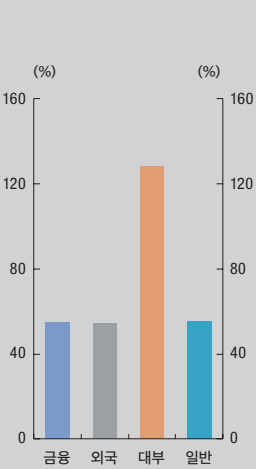
기업 :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PF 대출 증가

저축은행의 기업대출은 2020년 9월말 41.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5%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대부업체 등 금융·보험업 대출[10]이 2020년 9월말 전년동기대비 57.6% 급증하여 같은 기간중 기업대출 증가액(+5.5조원)의 절반 가량(46.7%)을 차지하였다. 특히 최대주주가 대부업 계열인 저축은행에서 금융·보험업 대출이 전년동기대비 128.1% 급증하였다. 대부업체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 저축은행은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에 대출하였는데, 담보로 설정한 대부채권의 약 80%가 금융권의 LTV 규제한도를 초과(20년 2월말)하였다.[11] 이는 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경로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 업종별 기업대출 증가율[1]



저축은행 소유구조별 금융·보험업 대출 증가율[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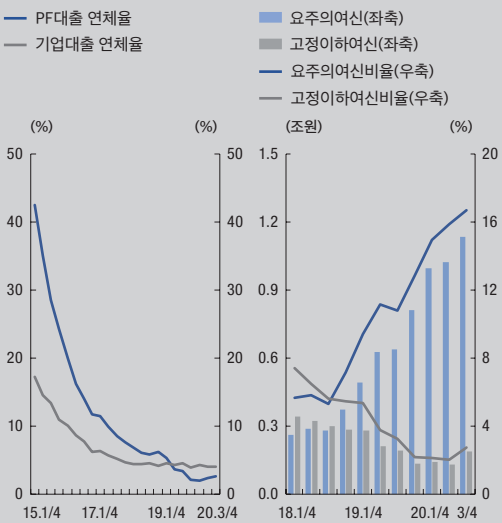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부동산 관련업은 부동산업 및 건설업 기준
2) 2020년 9월말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0) 2020년 9월말 금융·보험업 대출잔액은 7.1조원으로 기업대출(41.1조원)의 17.2%를 차지한다.
11) 금융당국은 일부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을 통한 금융권 LTV규제 우회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한 대부업체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의 경우 사실상 저축은행이 원차주에게 대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2020년 9월 2일 저축은행앞 행정지도하였다.

또한 과거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촉발한 바 있는 부동산PF 대출이 관련 규제 강화[12]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9월말 PF대출 규모는 6.8조원으로 2011~14년중 대폭 감소[13]하였다가 2015년 이후 연평균 23.1% 증가하였으며, 전체 대출 대비 PF대출 비중도 9.3%로 상승하였다.

한편 기업대출 연체율은 2020년 9월말 4.07%로 전년동기대비 0.51%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이 중에서 부동산PF 연체율은 2.56%로 같은 기간중 0.87%포인트 하락하였다. 다만, 부동산PF 여신 중에서 요주의여신이 2020년 9월말 1.1조원으로 2018년말(0.4조원) 이후 빠르게 증가[14]함에 따라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 기업대출 연체율[1] **부동산PF 요주의여신비율[1]**



주: 1) 기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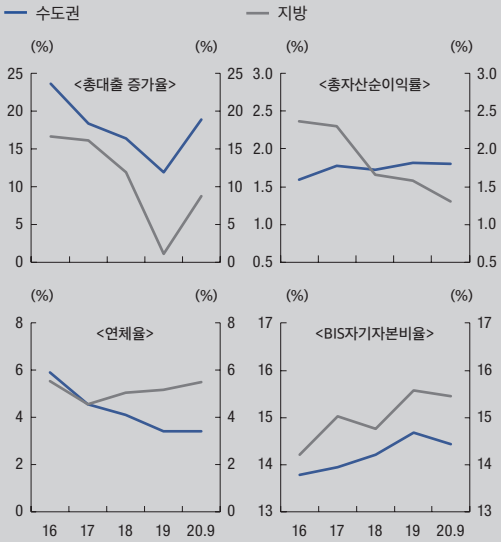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 간 격차 확대

지방 저축은행은 대출 증가세가 수도권 저축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15]이며 수익성, 건전성 등도 부진한 모습이다. 지방 저축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이 2020년 1~9월중 1.3%(연율)로 최근 수년간 하락한 반면, 연체율은 2018년 이후 상승 전환하였다.

지방 저축은행의 경영 부진은 지역경기 둔화에 주로 기인하는데, 특히 2018년 이후 기업대출 연체율이 부동산 관련 업종[16]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4.8% → 6.3%). 지방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 증가세 둔화 등으로 개선되었으나(16년말 14.2% → 20년 9월말 15.5%) 업체별로 편차가 상당히 크며 지방 저축은행의 대부분은 자본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형 저축은행이다.[17]

12) 과거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거치면서 총 여신의 PF여신 한도 축소(30% → 20%), 차주 자금으로 사업자금의 일정 비율(20%) 이상 조달 의무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사업성 평가결과 반영 등을 통해 부동산PF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다.
13) 저축은행의 PF대출은 2010년말 12.3조원에서 2014년말 2.1조원까지 감소하였다.
14) 부동산PF 총 여신의 요주의여신비율은 같은 기간중 7.2%에서 16.7%로 9.5%포인트 상승하였는데, 이는 일부 PF 사업장의 분양률 부진에 따른 사업성 평가등급 하향, 차주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5) 수도권 저축은행의 대출이 2020년 9월말 전년동기대비 18.9% 증가한 반면 지방 저축은행은 8.7% 증가에 그쳤으며, 지방 저축은행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말 20.8%에서 2020년 9월말 16.9%까지 하락하였다.
16) 2020년 9월말 저축은행 기업대출에서 부동산업 및 건설업 비중은 45.0%이며,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동 비중은 47.1%이다.
17) 2020년 9월말 지방 저축은행의 업체별 BIS자기자본비율은 최소 9.9%에서 최대 44.3%이며 자기자본 규모(평균 545억원)는 수도권 저축은행의 26.6% 수준이다.

지역별 저축은행 경영현황[1)]



주: 1) 총대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총자산순이익률은 누적 분기의 연율 환산, 연체율 및 BIS자기자본비율은 기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시사점

그간 구조조정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저축은행의 대출이 최근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이는 중·저신용 차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연체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자본비율도 규제수준을 상회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건전성도 양호하다. 특히 중금리 신용대출의 활성화는 저축은행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절감 등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향후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최근의 빠른 대출 증가세가 리스크 요인[18)]이 될 수 있으므로 내부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PF 관련 익스포저가 과거 저축은행 사태[19)]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요주의 여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부실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이 떨어지는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나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선제적인 자본확충 노력이 긴요하다. 또한, 저축은행의 신용 공급이 가계부채 규제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도 강화되어야 한다.

18) 저축은행 가계대출의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 또는 저소득 기준) 비중은 2020년 6월말 23.8%로 은행(3.4%), 상호금융(5.3%), 보험회사(7.1%), 여신전문금융회사(13.3%)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아, 경기 변화의 영향이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클 수 있다.
19) 2011년 2/4분기말 저축은행 부실화 사태 당시 PF 관련 익스포저(전체 대출 대비 비중)는 20.3%에 달하였다.

참고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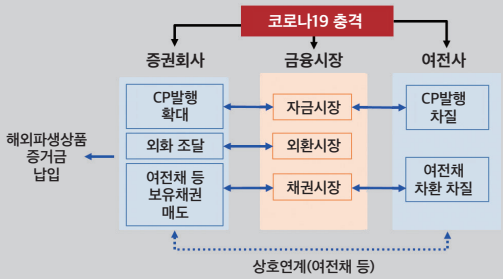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증권회사·여전사 자금조달운용 현황 및 시사점

금년 3월 코로나19 확산 시 금융기관 중에서도 증권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가 받은 충격이 두드러졌다. 이하에서는 코로나19 전후 증권회사 및 여전사의 자금조달운용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코로나19 확산과 증권회사·여전사의 충격 증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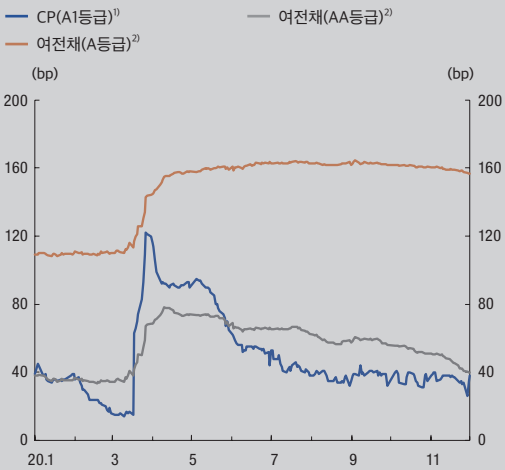
증권회사와 여전사는 시장성자금 의존도가 높은[1] 금융기관으로서 유동성리스크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또한 그간 양호한 금융시장 여건이 지속되면서 상황 악화 시에 대한 대비가 불충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회사의 유동성리스크는 코로나19 확산 충격을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킨 주된 경로로 작용했다. 해외 주가 급락으로 ELS 관련 미 달러화 증거금 납입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증권회사가 원화·외화자금 조달을 긴급하게 확대하면서 자금, 외환, 채권 시장으로 충격이 확산·증폭되었다.[2] 또한 증권회사의 여전사 발행 채권(이하 '여전채') 보유 확대[3]로 증권회사와 여전사 간의 연계성이 높아진 가운데, 증권회사의 여전채 등 채권 매도 및 CP 발행 확대는 여전사의 유동성 상황을 악화시켰다.

코로나19에 따른 증권회사·여전사 충격 파급 경로



이후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정책대응으로 금융시장은 조기에 안정을 되찾았고 증권회사, 여전사의 유동성 사정도 크게 개선되었다. 다만 일부 중·저신용등급(A등급 이하) 여전사의 경우 신용스프레드가 3월 이후에도 높게 유지되는 등 자금조달에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

CP-콜 스프레드 및 여전채 신용등급별 신용스프레드



주: 1) 콜금리 대비, 91일물 기준
2) 국고채 대비, 3년물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1) 2019년말 현재 총부채 대비 시장성자금 비중은 여전사 73.6%, 증권회사(투자자예수금 제외 기준) 20.6%로 여타 비은행금융기관(1% 내외) 대비 높은 수준이다.
2) 한편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안전자산 선호와 현금 선호가 대두되면서 시장 불안이 발생했다. 주가 하락 및 신용스프레드 급등으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을 급격히 축소함에 따라 일부 MMF 및 회사채 펀드에서 환매요청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파생상품 증거금 납입(마진콜) 수요가 급증했다.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이번 시장 불안이 투자펀드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금융시스템 내 영향력이 확대된 데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3) 증권회사의 여전사에 대한 익스포저는 2015년말 23.2조원에서 2019년말 38.6조원으로 66.5% 증가하였으며, 여전사의 증권회사에 대한 익스포저는 2019년말 3.3조원으로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증권회사, 여전사의 자금조달운용 현황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충격을 겪은 이후에도 증권회사와 여전사는 견조한 자산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증권회사는 2020년 1~9월중 자산증가율(연율 기준, 이하 동일)이 31.5%로 여타 금융업권을 크게 상회하였다.

(증권회사 : 위험투자 및 시장성자금 의존도 축소)

자금운용 측면에서 증권회사는 현금성 자산이 크게 증가했다. 미 달러화 증거금 납입 등의 영향으로 외화예치금·증거금이 2020년 1~9월중 149.7% 증가하였으며, 국내외 주식시장 호조로 인한 주식투자자금 유입으로 고객예치금과 신용공여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그간 빠른 증가세를 보였던 외화증권, 투자펀드, 주식 등 위험자산[4] 투자는 코로나19 이후 투자 여건 악화 및 규제 강화 등으로 크게 위축되었다.[5] 채권 투자의 경우에도 국채 등 저위험 채권 투자 증가[6]가 두드러졌다.

증권회사 관련 최근 주요 규제 강화

분 야	주 요 내 용
RP시장	○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 비율 ○ 최소증거금률(헤어컷) 적용
부동산PF	○ 증권회사의 PF채무보증 한도 설정 ○ 종투사의 PF대출 관련 혜택 폐지
파생결합증권	○ 조기상환 기준 만기로 유동성비율 내실화 ○ 원금비보장형 관련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 ○ 외화자산 관련 헤지자산 분산투자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자본성 장기조달인 후순위채 발행[7]이 늘어난 가운데,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시장성 자금조달 의존도[8]가 감소하였다. 대표적인 시장성 자금조달인 기관간 RP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신성자금인 대고객 RP에 의한 자금조달이 확대되었다.[9] 한편 발행어음은 빠른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2020년 1~9월중 10.4% 감소(16~19년중 연평균 4.7% 증가)로 전환하였다.

증권회사 주요 자산·부채증가율

(%, 조원)

계 정	2016~19년[1]	2020년 1~9월[2]	2020년 9월 말잔
현금 및 예치금	4.8	77.3	116.1
(고객예치금)	5.3	118.5	60.2
(외화예치금·증거금)	-9.8	149.7	10.9
유가증권	9.0	10.9	342.8
(채권)	8.6	23.9	65.0
대출채권	16.6	21.0	56.6
(신용공여금)	11.1	34.2	33.7
(기업대출금)	25.8	4.9	22.9
자산 계	8.8	31.5	597.1
예수부채	10.1	97.4	82.2
(고객예수금)	7.9	107.2	77.7
차입부채	8.9	14.5	363.7
(단기차입)[3]	23.6	22.9	27.4
(RP매도)	5.0	27.8	147.1
(매도파생결합증권)	4.7	-10.4	104.2
(발행어음)	46.8	36.6	17.4
자본	7.7	10.0	66.4
부채·자본 계	8.8	31.5	597.1

주: 1) 연평균 2) 연율화 3) 콜, CP, 단기사채의 합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연합인포맥스

4) 위험자산은 신용·시장리스크 등을 수반하는 투자상품으로서 증권회사의 자기매매와 파생결합증권 운용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5) 외화증권, 투자펀드,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는 2016~19년중 높은 연평균 증가율(각각 42.4%, 35.9%, 19.9%)에서 2020년 1~9월중 감소(각각 -3.3%, -21.4%, -12.2%)로 반전했다.
6) 2020년 1~9월중 국채·지방채, 특수채, 금융채의 증가율(114.1%, 17.1%, 37.5%)이 2016~19년중 연평균 증가율(7.9%, 1.7%, 25.4%)을 상회했으며, 회사채는 18.8% 증가하여 2016~19년중 연평균 증가율 20.0%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7) 후순위채 발행잔액은 2020년 1~9월중 39.5% 증가하여 2016~19년중 연평균 5.9%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8) 총부채 중 시장성 자금조달(후순위채 제외 증권채, 기관간 RP, 콜, CP, 단기사채의 합계)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2019년말 20.6%에서 2020년 9월말 18.4%로 감소했다.
9) 기관간 RP매도잔액은 2020년 1~9월중 0.5% 증가에 그쳐 2016~19년중 연평균 49.7% 증가율을 크게 하회한 반면, 대고객 RP매도잔액은 2016~19년중 연평균 2.1% 감소에서 2020년 1~9월중 40.2% 증가로 전환했다.

(여전사 : 현금성 자산 증가 및 단기조달 일부 확대)

자금운용 측면에서 여전사도 예비적 동기의 여유자금 운용을 크게 확대했다. 현금 및 예치금은 2020년 1~9월중 80.7% 증가하여 예년의 증가율(16~19년중 연평균 2.8%)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유가증권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카드사는 주로 MMF 등 안정적인 수익증권이 증가하였으며 캐피탈사의 경우 투자수익 확보 목적의 유가증권 보유[10]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간 여전사는 저금리,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영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기조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카드사는 카드사업 비중을 줄이고 할부금융·리스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11]했다. 캐피탈사는 상대적으로 고수익·고위험 자산인 대출, 투자금융 영업을 강화[12]했는데, 이러한 포트폴리오 조정은 운용자산의 만기를 장기화시켜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차입부채의 60% 내외를 차지하는 장기 여전채 발행이 예년보다 다소 둔화[13]되었다. 카드채의 경우 예년 수준의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중·저신용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자금조달 애로가 이어지면서 캐피탈채 발행이 부진했다. 이에 대응하여 캐피탈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장기차입을 확대했으며, 특히 A등급 이하 캐피탈사는 단기자금조달도 다소 확대[14]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전사 주요 자산·부채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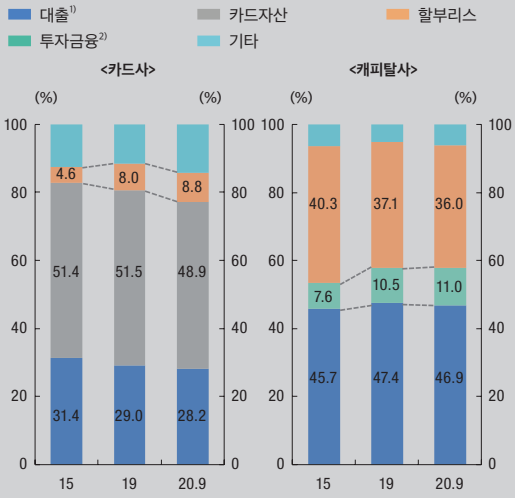
(%, 조원)

계 정	2016~19년[1]	2020년 1~9월[2]		2020년 9월 말잔
		카드	캐피탈	
현금 및 예치금	2.8	80.7	125.2	55.3	11.9
유가증권	17.5	27.5	47.9	19.6	24.2
대출채권	11.3	10.0	37.9	9.0	85.6
카드자산	7.3	3.1	3.1	-	104.6
할부금융·리스자산	10.4	9.2	24.6	6.5	75.2
자산 계	9.5	10.5	10.2	10.7	315.1
차입부채	11.1	10.1	8.7	11.0	229.0
(단기차입금)	-5.5	3.9	-11.4	6.7	12.7
(장기차입금)	12.4	24.2	6.1	45.7	28.1
(단기사채)	-11.3	45.8	73.3	22.4	3.5
(장기사채)	14.6	7.2	9.7	5.7	138.9
자본	6.3	7.6	4.7	10.8	55.1
부채·자본 계	9.5	10.5	10.2	10.7	315.1

주: 1) 연평균
2) 연율화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0) 대체투자 등에 투자하는 투자금융 사업이 확대되면서 캐피탈사의 유가증권은 2016~19년중 연평균 20.1%, 2020년 1~9월중 19.6% 증가하는 등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11) 카드자산은 2020년 1~9월중 3.1% 증가하면서 2016~19년중 연평균 증가율 7.3%를 하회한 반면, 할부금융·리스자산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면서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말 4.6%에서 2020년 9월말 8.8%로 2배 가량 확대되었다.
12) 캐피탈사의 할부금융·리스자산 비중은 2015년말 40.3%에서 2020년 9월말 36.0%로 축소된 반면, 투자금융 및 대출자산은 동 기간중 53.3%에서 57.9%로 확대되었다.
13) 장기사채가 2020년 1~9월중 7.2% 증가하면서 2016~19년중 연평균 증가율 14.6%를 하회했다.
14) 장기채보다 만기 1년 내외 단기자금 조달이 증가하면서 A+ 이하(선순위 회사채 기준) 캐피탈사는 단기조달비중(단기차입금 및 만기 1년 이내 도래 사채/차입부채)이 2020년 9월말 27.3%로 전년말 대비 2.6%포인트 상승(전체 여전사 0.9%포인트 상승)했다.

여전사 자산구성 변화



주: 1) 대출채권, 카드자산 중 카드론, 현금서비스 포함
2) 유가증권, 신기술금융자산 포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시사점

코로나19 확산으로 유동성 충격을 겪은 이후 증권회사와 여전사는 현금성 자산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으로 유동성리스크 대응능력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도 코로나19 충격으로 리스크가 부각된 개별 부문을 중심으로 규제 강화를 추진 중[15]이다.

그러나 일부 유동성 관리 개선과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와 여전사는 금융시장 의존도가 높은 영업모델 특성상 다양한 요인의 유동성 충격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비은행 금융중개 활동이 크게 발달한 미국 등의 경우 그간의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번 충격시 MMF, 회사채 투자펀드의 대규모 환매, 마진콜 발생 등의 잠재리스크가 현재화되면서 관련 금융기관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의 자금경색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증권회사, 여전사의 성장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잠재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부문별 리스크관리에서 전체 자금조달운용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증권회사는 리스크가 부각된 부동산PF 및 파생결합증권은 물론,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여온 해외투자를 포함하여 보다 엄격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전사는 사업다각화에 따른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 확대 등의 리스크에 대한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충격에 대비한 자금조달계획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번 충격시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대규모 시장개입이 불가피하였으나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공적인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위기시에도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5) 금융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20년 7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20년 7월)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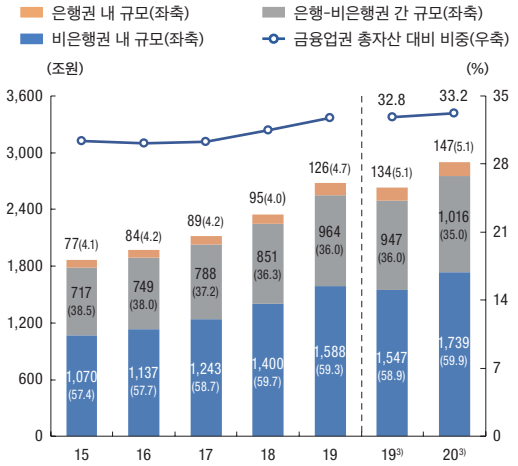
3. 상호연계성

상호거래 증가세 지속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20]는 2020년 2/4분기말 2,90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4% 늘어났다.[21] 금융부문의 총자산(8,736조원, 자금순환통계 기준)에서 상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2/4분기말 32.8%에서 2020년 2/4분기말 33.2%로 0.4%포인트 상승하였다.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를 은행권 내, 은행·비은행권 간 및 비은행권 내로 나누어 살펴보면, 비은행권 내 거래가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을 중심으로[22] 전년동기대비 12.4%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은행권 내 거래는 9.9%, 은행·비은행권 간 거래는 7.2% 증가하였다. 그 결과 전체 상호거래에서 비은행권 내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2/4분기말 58.9%에서 2020년 2/4분기말 59.9%로 높아진 반면, 은행·비은행권 간 거래 비중은 같은 기간중 36.0%에서 35.0%로 낮아졌다. 한편, 은행권 내 거래 비중은 전년동기(5.1%)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그림 Ⅲ-18).

그림 Ⅲ-18. 금융기관·업권 간 상호거래 현황[1)2)]



주: 1) 상호거래 규모는 자금순환통계 기말 기준
2) ( ) 내는 전체 상호거래 규모 대비 비중
3) 각 연도 2/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업권별로 보면 국내은행, 증권, 신탁 및 투자펀드가 업권간 상호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년 2/4분기말 현재 국내은행·신탁 간 상호거래 규모가 231.8조원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국내은행·증권(193.6조원), 보험·투자펀드(182.2조원), 증권·신탁(166.4조원)의 순으로 나타났다[23](그림 Ⅲ-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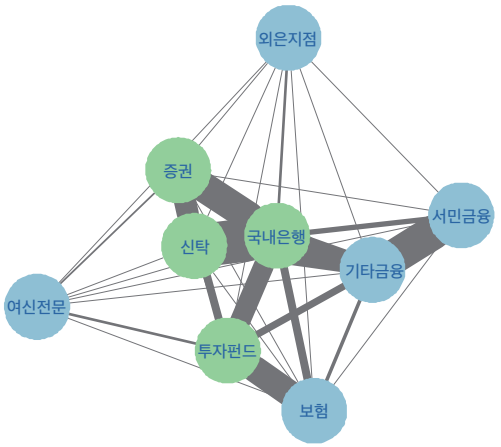
20) 자금순환통계의 금융자산부채 잔액표, 현금 및 예금 명세서, 차입금 명세서, 유가증권 보유명세서 등 주요 조사표를 활용하여 예금, 대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된 48개 금융상품과 19개 개별은행, 34개 금융업권 및 9개 기타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 <금융안정 현안 분석>「Ⅲ. 은행시스템 상호연계성 분석 및 횡단면 시스템 리스크 측정」(114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21)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규모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017년 2/4분기말 6.5% → 2018년 2/4분기말 8.0% → 2019년 2/4분기말 14.0% → 2020년 2/4분기말 10.4%이다.

22) 비은행권 내 상호거래 규모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액(191.8조원) 중 증권업권 내 상호거래 증가폭(44.2조원)이 가장 컸으며, 이는 개인의 주식 및 공모주 청약 자금 유입 등으로 고객예탁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며(19년 2/4분기말 24.7조원 → 20년 2/4분기말 46.3조원) 자금 운용이 커진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3) 2020년 2/4분기말 현재 상호거래 규모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액은 증권업권 내 44.2조원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국내은행·증권(27.6조원), 보험·투자펀드(23.7조원), 국내은행·투자펀드(23.2조원), 증권·신탁(13.7조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9. 금융업권 간 상호연계 구조[1)2)3)4)]



주: 1) ●은 상호거래 규모 기준 상위 4개 업권
2) 네트워크 시각화 분석 기법을 활용한 상호연계 구조로서 금융업권 간 상호거래 규모에 비례하여 중앙성, 집중도, 선 굵기 등이 크게 나타남
3) 신탁은 은행·증권·보험회사의 신탁계정, 서민금융은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 등, 기타금융은 각 서민금융기관 중앙회·공적금융기관·지주회사 등
4) 2020년 2/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업권 간 상품별 상호거래 현황을 보면 주로 예금 및 채권을 통해 상호거래가 이루어졌다. 2020년 2/4분기말 현재 예금 및 채권을 통한 상호거래 비중은 각각 23.4% 및 22.2%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6%포인트, 0.7%포인트 상승하였다.[24)] 반면 주식을 통한 상호거래 비중은 19.7%로 0.5%포인트 하락하였다(표 Ⅲ-1).

표 Ⅲ-1. 금융업권 간 상품별 상호거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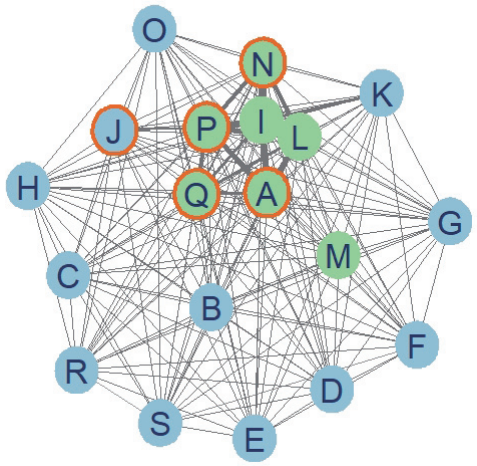
(조원, %, %p)

상품	2019년 2/4분기말		2020년 2/4분기말		B-A
	규모	비중(A)	규모	비중(B)	
예금	599.2	22.8	680.0	23.4	0.6
채권	566.3	21.5	643.0	22.2	0.7
주식[1)]	529.9	20.2	570.6	19.7	-0.5
대출	133.2	5.1	147.1	5.1	0.0
RP	122.9	4.7	140.7	4.8	0.1
파생	68.7	2.6	80.4	2.8	0.2

주: 1) 주식에는 투자펀드지분, 주가연계증권(ELS) 등이 포함
자료: 한국은행

한편 국내은행 간 상호연계 구조를 보면 일부 시중 및 특수 은행을 중심으로 연계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20).

그림 Ⅲ-20. 국내은행 간 상호연계 구조[1)2)3)]



주: 1) 네트워크 시각화 분석 기법을 활용한 상호연계 구조로서 은행간 상호거래 규모에 비례하여 중앙성, 집중도, 선 굵기 등이 크게 나타남
2) ○은 D-SIB, ●은 상호거래 기준 상위 7개 은행
3) 2020년 2/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24) 주로 고객예탁금 증가에 따라 증권업권의 예금과 채권 운용액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상품별로는 채권이 전체 국내은행 간 상호거래에서 가장 높은 비중(60.2%)을 차지하여 전년동기대비 상승폭(6.7%포인트)도 가장 컸다.[25] 반면 대출 비중은 18.7%로 전년동기대비 0.8%포인트 하락하였다(표 Ⅲ-2).

표 Ⅲ-2. 국내은행 간 상품별 상호거래 규모

(조원, %, %p)

상품	2019년 2/4분기말		2020년 2/4분기말		B-A
	규모	비중(A)	규모	비중(B)	
채권	71.7	53.5	88.7	60.2	6.7
대출	26.2	19.5	27.6	18.7	-0.8
파생	5.9	4.4	6.8	4.6	0.2
예금	6.8	5.1	4.7	3.2	-1.9
주식	4.4	3.3	4.0	2.7	-0.6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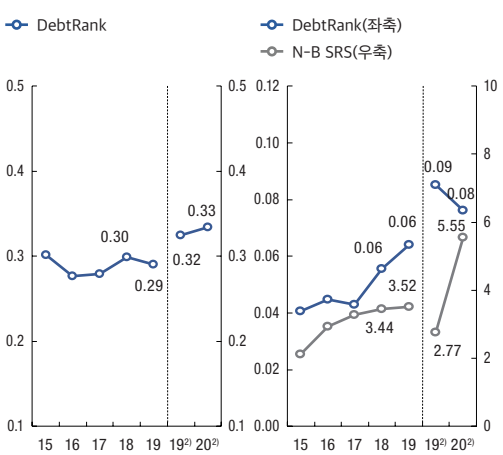
부실전염 리스크 증가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구조를 토대로 부실전염 및 집중도 리스크를 분석한 결과, 부실전염 리스크가 증가한 반면 집중도 리스크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부실전염 리스크 지표인 DebtRank[26]의 경우 금융업권 간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은행권 내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염리스크 총량 지표인 은행권 내 N-B SRS[27]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은행채 스프레드 확대[28]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그림 Ⅲ-21).

그림 Ⅲ-21. 부실전염 리스크[1]



주: 1) 기말 기준
2) 각 연도 2/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25)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금융지원 확대로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은행채 발행액이 큰 폭으로 증가(19년중 6.7조원 → 20년 상반기중 27.9조원, 순발행액 기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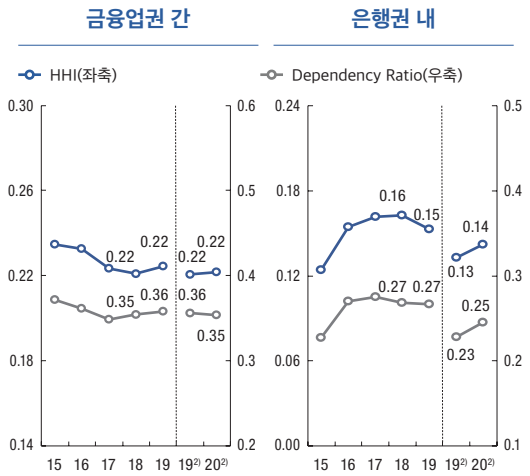
26) 특정 업권(은행)의 도산에 따른 충격이 거래상대방에게 상호거래 익스포저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산되어 나타나는 손실 합계가 전체 금융(은행)권 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업권(은행)별로 계산하고 이를 단순 평균한 값이다. DebtRank 0.05는 특정 업권(은행)의 도산에 따른 손실이 평균적으로 금융(은행) 전체 운용자산 대비 5%의 손실을 초래함을 의미한다(Battiston et al., "DebtRank: Too Central to Fail? Financial Networks, the Fed and Systemic Risk", 2012).

27) Network-Based Systemic Risk Scoring은 특정 은행의 도산 확률(은행채 스프레드로 추정)이 여타 은행과의 상호거래 익스포저를 통해 확대되어 나타나는 리스크 총량으로서 거래관계에 있는 두 은행의 부도확률과 상호거래 규모를 곱한 값을 모든 거래조합에 대해 산출 후 합산한 값의 제곱근으로 정의한다(Das, "Matrix Metrics: Network-Based Systemic Risk Scoring", 2015).

28) 2020년 2/4분기중 은행채(AAA, 3년) 평균 스프레드(국고채 3년물 대비)는 29.4bp로 전년동기(15.4bp)보다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집중도 리스크를 나타내는 HHI지수[29]와 단일 거래상대방 의존율(Dependency Ratio)[30]은 금융업권 간에서 전년동기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은행권 내에서는 소폭 상승하였다(그림 Ⅲ-22).

그림 Ⅲ-22. 집중도 리스크[1]



주: 1) 기말 기준
2) 각 연도 2/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29) 각 업권(은행) 단위로 여타 업권(은행)과의 거래비중 제곱 합을 산출한 후 가중평균한 값으로, 소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를 의미한다.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비중과 가중치는 자금운용 거래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30) 각 업권(은행) 단위로 거래 규모가 가장 큰 업권(은행)과의 거래비중을 산출한 후 가중평균한 값으로,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를 의미한다.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비중과 가중치는 자금운용 거래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Ⅳ. 자본유출입

2020년 1~11월중 외국인 국내증권투자는 주식자금은 순유출된 반면, 채권자금은 순유입되었다. 외국인 주식자금은 금년 9월까지 국내외 코로나19 전개양상 등의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유출되었으나 10월 이후에는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유입세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 채권자금은 1~7월중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 등에 따라 공공자금을 중심으로 대규모 유입되었다가 9월 이후에는 차익거래유인 축소, 만기상환 규모 확대 등으로 소폭의 유출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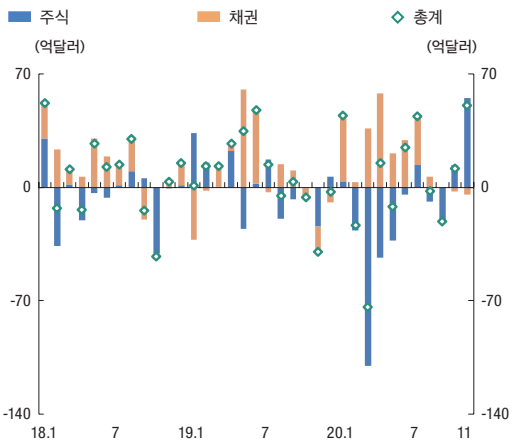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순투자 규모는 축소되었다. 주식은 일반정부, 기타금융기관 및 개인이 순투자를 견인하였으나, 채권은 글로벌 저금리 기조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투자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증가세 지속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1]는 2020년 1~11월중 58억달러(주식 -161억달러, 채권 219억달러) 순유입되었다. 외국인 주식자금은 연초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 등에 따른 대규모 유출[2]이 진정된 이후 주요국의 정책대응 등에 힘입어 유출규모는 축소되었다. 10월 이후에는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 완화, 코로나19 백신 개발 진전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국내 경제지표 개선, 주가 상승 및 원화 강세 등으로 유입되고 있다.

외국인 채권자금은 1~7월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 등으로 공공자금을 중심으로 대규모 유입되었다. 그러나 8월부터 공공자금의 유입이 둔화된 가운데 9월 이후에는 차익거래유인 축소[3] 등에 따른 민간자금의 유입 부진, 만기상환 규모 확대[4] 등으로 외국인 채권자금은 소폭의 유출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Ⅳ-1).

그림 Ⅳ-1.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증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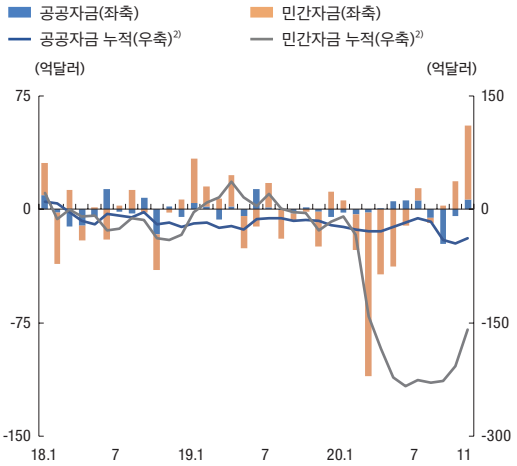


주: 1) '+'는 순유입, '-'는 순유출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투자주체별로는 주식자금은 글로벌 펀드 등 민간자금이, 채권자금의 경우 공공자금이 유출입 변동을 주도하였다(그림 Ⅳ-2, 그림 Ⅳ-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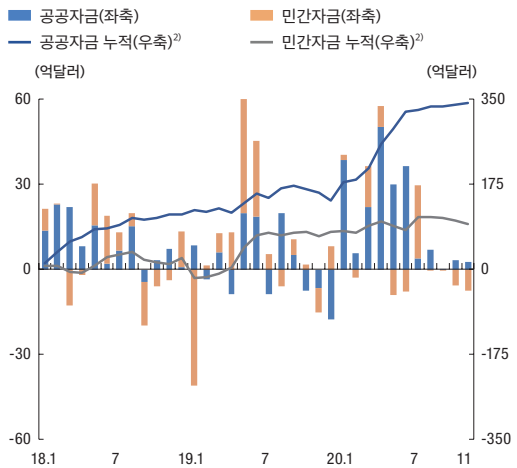
1) 주식은 상장주식(KOSPI·KOSDAQ)의 장내·외 거래 및 기업공개(IPO)를 포함하며(단, ETF·ELW·ETN 등 제외), 채권은 상장채권의 장내·외 거래 기준(RP거래 및 만기도래분 반영)이다.
2) 특히 3월중 주식자금 유출 규모는 110.4억달러로 2007년 8월 유출 규모(-99.9억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3) 차익거래유인(3개월물 기준, 기간중 일평균)은 8월 50bp에서 9월 44.8bp, 10월 45.5bp, 11월 35.9bp로 하락하였다.
4) 2020년 9~11월중 월평균 만기상환 규모는 45억달러 수준이다(20년 1~8월중 평균 28억달러).

그림 Ⅳ-2. 투자주체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증감[1)]



주: 1) '+'는 순유입, '-'는 순유출을 의미
2) 2018년 1월 이후 월별 순유입액의 누적 합계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Ⅳ-3. 투자주체별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증감[1)]



주: 1) '+'는 순유입, '-'는 순유출을 의미
2) 2018년 1월 이후 월별 순유입액의 누적 합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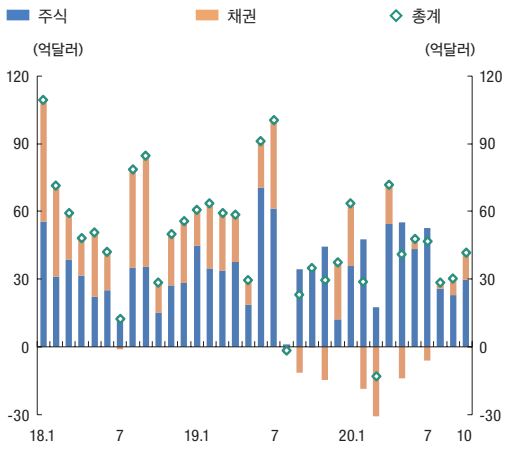
2020년 11월말 외국인 주식투자 잔액은 675조원으로 시가총액[5)]의 3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말(33.8%)보다 2.1%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한편 외국인 채권투자 잔액은 150조원으로 전체 상장채권잔액 대비 비중은 6.7%이며 전년말(6.2%)보다 0.5%포인트 상승하였다.

향후 외국인 국내증권투자는 국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등으로 주식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 강화 등이 투자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증가폭 축소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2020년 1~10월중 386억달러(주식 384억달러, 채권 2억달러) 증가하여 전년동기(519억달러)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133억달러)되었다(그림 Ⅳ-4). 한편 2020년 9월말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잔액은 6,326억달러이며, 이 중 주식은 3,978억달러, 채권은 2,349억달러를 차지하였다.

그림 Ⅳ-4.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증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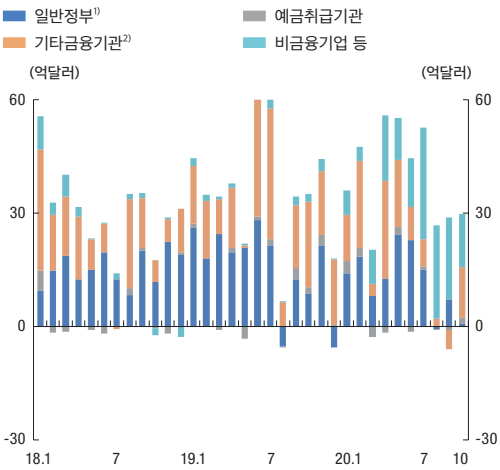


주: 1) '+'는 순투자, '-'는 순회수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5)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합계 기준이다.

투자주체별로 보면, 주식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일반정부(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등)와 기타금융기관(자산운용회사 등)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7월 이후에는 개인의 해외주식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비금융기업(개인, 민간기업 등)이 증가세를 견인하였다(그림 Ⅳ-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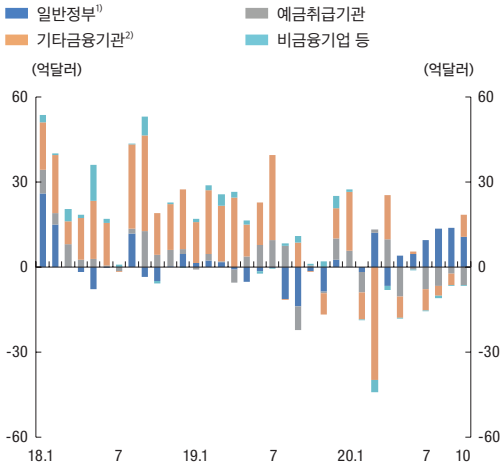
그림 Ⅳ-5. 거주자 해외 주식투자자금의 투자주체별 증감



주: 1)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등
2)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자료: 한국은행

채권은 글로벌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수익률 저하 등으로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투자가 감소하면서 전체 해외채권투자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그림 Ⅳ-6).

그림 Ⅳ-6. 거주자 해외 채권투자자금의 투자주체별 증감



주: 1)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등
2)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자료: 한국은행

향후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방향[6]에 따라 해외 주식 및 채권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개인의 해외주식투자도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 등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6) 「2021~202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해외주식투자 비중을 2020년말 22.3%에서 2021년말 25.1%로 확대하며, 궁극적으로 2025년말에는 35% 내외 수준으로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채권투자 비중의 경우 2020년말 5.5%에서 2021년말 7.0%, 2025년말에는 10% 내외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